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박사학위논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송 미 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on Aggression
with Self-Esteem as a Mediator in Middle School Girls

2011년 2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송 미 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특수교육학과

송 미 옥

송미옥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영 일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연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 유 성 (인)

심 사 위 원 고구려대학 교수 곽 수 란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승 희 (인)

2010년 12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표목차	iv
그림목차	v
ABSTRACT	v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6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9
1. 공격성	9
1) 공격성의 개념 및 하위유형	9
2) 공격성의 원인	13
3) 여학생의 공격성	17
2. 자아존중감	22
1) 자아존중감의 개념	22
2)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23
3. 부모애착	25
1) 부모애착의 개념	25
2)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26
4. 또래관계스트레스	28
1) 또래관계스트레스의 개념	28
2) 또래관계스트레스와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31
III. 연구방법	37

1. 연구대상	37
2. 연구모형	39
3. 변수와 연구도구	41
1) 부모애착	42
2) 또래관계스트레스	43
3) 자아존중감	44
4) 공격성	45
4. 연구절차	46
5. 자료분석	46
 IV. 연구결과	 52
1.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분석	52
2.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상관분석	53
3.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인과분석	55
1) 구조방정식모형	55
2) 구조방정식모형 평가	56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58
 V. 논의	 62
1.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62
2.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64
3.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67
 V.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4

참고문헌	77
부 록	96

표목차

<표 III-1> 연구대상에 기초사항	38
<표 III-2> 변수의 종류	40
<표 III-3> 변수와 측정도구	41
<표 III-4> 부모애착의 측정도구의 문헌구성과 신뢰도	42
<표 III-5> 또래관계스트레스의 측정도구의 문헌구성과 신뢰도	43
<표 III-6>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의 문헌구성과 신뢰도	44
<표 III-7> 공격성의 측정도구의 유형별 문헌구성과 신뢰도	45
<표 III-8> 관찰변수들의 기초통계치	48
<표 IV-1> 여중생의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분석 결과	52
<표 IV-2>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53
<표 IV-3>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56
<표 IV-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59
<표 IV-5> 전체, 직접, 간접효과	61

그림 목차

<그림 Ⅲ-1> 연구모형	40
<그림 Ⅳ-1> 공격성 구조방정식모형	56
<그림 Ⅳ-2> 공격성 구조모형 추정결과	60

ABSTRACT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on Aggression with Self-Esteem as a Mediator in Middle School Girls

MI OK SONG

Advisor : Seunghee Lee, Ph.D.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ursue the degree and the patterns of the aggression in middle school girls,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stress, self-esteem and aggression and to see the routes among the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their aggression. To achieve these aims, theoretical model was set which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stress and the variables of self-esteem explained the aggressions of the middle school girls on the basis of the related former studies, and then analysis of it was conducted.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six hundred middle school girls in the four schools selected through the convenience sampling among the eighty-four middle schools in Gwangju City. The basic questionnaires on parental attachment, the scale of peer relationship stress, self-esteem and the aggression were distributed to them and the data which had been subjected to the 528 students(147 in the first grade, 381 in the second grade) confirmed the valid were analysed. I have revised and u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edition」 used by Jeong Oak(1998) to measure the degree of parental attachment, 「Global Assessment of Recent Stress」 used by Seon-hee Lee(1991) to measure peer relationship stress, 「The Index of Self-Esteem」 used by Ki-hyun Song(2005) to measure self-esteem, and 「The Examination of Aggression」 reorganized by Jae-geun Kim(1993) to measure aggression. The data was analysed through *t*-test(two-independent sample),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an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like followings.

First, as the result of conducting the *t*-test through the SPSS program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gree and patterns of the girls' aggression, the average of the aggression by 528 girls was 2.52 and the physical aggression($M=2.88$) in the patterns of girls' aggressions was higher than the verbal aggression($M=2.23$).

Secondly, as the result of Pearson's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in order to see what relations there were between girls'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s stress, self-esteem and aggression,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in every variable showed all the significant result in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girls' aggression.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stress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parental attachment and self-esteem showed the static correlation, and parental attachment and aggression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And also, peer relationship stress and self-esteem showed an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peer relationship stress and aggression showed an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and self-esteem and aggression showed an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Thirdly, as the result of conducting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using LISREL program to grasp the causation which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influenced on the aggression in the middle school girls through the medium of self-esteem, the direct effects which parental attachment has influence on the aggression as a method that middle school girls' aggression showed the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and direct effects which peer relationship stress has influence on the aggression showed the significant static effects. On the other hand,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showed that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medium of self-esteem are insignificant and self-esteem didn't show the role of the mediator between parental attachment, peer relationship stress and middle school girls' aggression. That is to say, the degree between the parents and their middle school girls was not shown to have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self-esteem, and the deeper the affec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ir middle school girls was, the less effect the middle school girls have on the aggressive behavior. Also, the higher peer relationship stress was, the lower self-esteem was, but the lower self-esteem was, the less middle school girls' aggression was influenced. However, the higher peer relationship stress was, it influenced on the direct aggression. In short, the deeper the affection between the parents and their middle school girls was, the less aggressive behavior the girls showed, and the affection for their parents had insignificant effect on self-esteem. Also, the higher the stress in the peer groups was, the lower self-esteem was and the higher the aggression was but self-esteem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aggression. Therefore, the degree of the aggression did not show the differenc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he self-esteem but showed the large difference in proportion to the degree of the stress in the peer group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심리학자인 G. Stanley Hall(1844~1924)은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명명하였는데, 그 명칭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그 별칭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청소년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김덕호, 2000).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는 학교폭력이나 괴롭힘과 같은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이다. 청소년의 이러한 공격행동은 형태는 다르지만,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가해 청소년이나 피해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의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가 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Kupersmidt, Coie, & Dodge, 1990).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공격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서보다 남학생들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훨씬 더 보편적인 신체적 공격, 행위들에 관해 집중되어 왔으며(Coie & Dodge, 1998), 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공격적 행동의 한 형태인 신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와 같이 여학생 공격성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데에는 여학생이 그다지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과 남학생만큼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와 그 대책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여학생들은 공격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공격성에 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남학생들의 때리기, 밀기 같은 외현적인 공격성에 관한 것이어서(Berkowitz, 1993; Block, 1983; Parke & Slaby, 1983), 결과적으로 여학생의 공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Crick & Dodge, 1994).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주위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성과 연령(Crick & Grotpeter, 1995; Olweus, 1994), 또래로부터의 거부(Kupersmidt et al., 1990), 자아 존중감(이민아, 1999; Rigby & Slee, 1993), 불안(Crick & Dodge, 1998), 우울(Crick & Dodge, 1998), 충동성(이춘재, 1999), 내적 통제성(김애경, 2001a; 박영신, 김의철, 1998) 등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변화시킨다면 공격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가족의 기능(정재임, 2000; Hart et al., 2000)이나 부모애착(Dryfoos, 1989; Hazan & Shaver, 1990; Underwood, 2003) 등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과 우정, 친구로부터의 지지, 비행또래와의 관계(Parke & Slady, 1983),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환경(이상균, 1999), 그리고 기타 폭력적인 매체(구정화, 2000) 등의 환경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있다고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부모애착은 아이들로 하여 사회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깊은 사회적 배척에 민감해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Underwood, 2003). 부모애착은 여학생들이 화를 표출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여러 방식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Dryfoos(1989)는 부모가 자녀와 충분히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지도감독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며,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경우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Hazan과 Shaver(1990)는 불안정 애착 집단이 안정 애착 집단에 비해 외로움, 우울, 불안, 적개심, 정신적 질환 및 신체 질환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생은 아동과 성인의 중간기적 위치에서 연령적으로 12세에서 15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로 인간 생애에서 제2의 탄생이라 불릴 정도로 급속한 성장과 변화의 시기이며 다양한 측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갈등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 자아의식과 현실적응 사이에서 긴장과 소외와 혼돈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급격한 신체적·성적 변화, 역할의 변화와 혼란, 정체감혼란, 기성세대와의 세대 차이, 현대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성인 못지않은 스트레

스를 경험한다(노혜숙, 1986; 송종용, 1988; 이명희, 1989; 이정순, 1988; 이재원, 1989)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성장 발달 과정상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이 공통적인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부정적인 또래관계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또래에 의한 거부 또는 소수의 또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또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Coie, Lochman, Terry, & Hyman, 1992; Keenan, Loeber, Zhang, Stouthamer-Loeber, & Van Kamman, 1992). 김영선(2000)에 따르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남녀별 스트레스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공격성과의 관계는 높은 수준의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면 할수록 공격적 성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단순한 부적응 행동뿐만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비행과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도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김애경, 2001b; 최정훈, 1973; Donnellan, Trzesniewski, Richard, Terrie, & Caspi, 2005; Malet, 2007) 그 이유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 적대감을 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신중순, 1991).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자기행복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분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Brown & Mankowski, 1993), 자기가치 평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낮다는 연구결과(McMahon & Warts, 2002)는 자아존중감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고 하였다(하영희, 2004). Mann(1981)과 Gold(1982)는 손상된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이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얻은 자녀는 또래에게서 애정이나, 신뢰, 관심의 지지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한다

고 하였다(강효숙, 2003).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며 학교,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애착을 형성하면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완정, 이은영, 1988). 즉 대인관계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Crozier, 1979; Jones & Briggs, 1984), 스트레스의 요인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고(석지혜, 1997),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함으로써(Clark & Arkowitz, 1975) 결국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밝혀봄으로써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저 연령화, 죄책감의 약화, 여학생 폭력의 증가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의 폭력은 1999년 가해율 2.2%에서 2006년 14.2%로 7배나 늘어나 그 증가가 뚜렷하고 폭력내용도 갈수록 흉포하고 잔혹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2008년 청소년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지난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은 21.5%로 10명 중 2명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협박피해 경험이 14.2%, 금품갈취 경험이 8.8%, 급우나 또래로부터의 폭행 경험이 7.6%, 지속적인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3.1%였다. 그리고 2007년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청소년범죄는 2002년 총 범죄 대비 5.1%였던 것이 2005년에 3.6%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3.9%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비는 2002년 61.7%에서 2005년 67.4%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 및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학생의 공격성 급증은 전통적으로 약하고 부드럽다고 인식되어온 여성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다. 또한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性)의 차이만으로 단순히 공격성을 예측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장혜정, 2008).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공격성 및 관련변인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여학생 공격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뿐 아니라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토대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남학생은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 반해 여학생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공격성 즉 간접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Crick & Grotpeter, 1996) 오히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접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Tremblay, 2000) 여학생 공격성의 특성과 기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격성에 대한 연구만큼 그 대상 연령층도 광범위한데, 여학생 공격성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키며,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해 주는 연구들은 거의 없다. 그런 행동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효과적인 중재 가능성도 제고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 공격성이 여학생들의 좋게 보이려는 욕구 및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감추려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때는 여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극성 훈련이 유용할 것이며, 여학생들이 순전히 관계적, 사회적 공격성 때문에 다른 여학생들을 배척한다면, 이는 이러한 행동을 줄이도록 여학생들 스스로 중재하도록 하는 또래 교육을 통해 바로잡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어떻게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 여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공격성을 보이는 여학생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나 부모, 그리고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여학생 공격성의 특성을 살피고 관련변인간의 관계를 밝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고 여중생 공격성에 자아존중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하는지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변수들 간의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및 공격성 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① 여중생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1, 2학년 여학생을 말한다.

②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서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이 포함되는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의미한다(최미경, 2000).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신뢰감(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소외감<↔관심>(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Armsden & Greenberg, 1987)를 옥정(1998)이 번안 사용한 「부, 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IPPA-R)」의 하위요인 가운데 신뢰감(10문항)과 소외감(6문항)의 점수를 말한다.

③ 또래관계스트레스

또래관계란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성숙 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인 또래에 대하여 형성된 정서적 유대를 뜻하는 것으로,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를 의미한다(Perry & Bussey, 1984). 또한 스트레스는 ‘행동적이거나 생리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자극 또는 상황에 대해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인지적, 행동적, 생리적, 변화과정’으로 정의된다(홍광식, 1996).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또래에 대하여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위하여 행동적이거나 생리적 적응을 필요로 하는 자극’으로 정의하고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이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동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의 두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각각은 「스트레스 요인 질문지」(원호택, 김순화, 1985)와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질문지」(최혜림, 1986), 그리고 Mechanic(1972)의 질문지를 박선희(199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질문지에서 스트레스 지각척도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10문항) 가운데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2문항)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8문항)의 점수를 말한다.

④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으로 자신이 주위 환경 속에서 지각한 자신의 여러 속성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적이고 감정적 태도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정도이며, 내면적 삶의 중핵으로 지속적인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을 의미한다(Coopersmith, 1967).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적자아존중감(일반적 자아상을 나타내는 것)과 사회적자아존중감(친구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는 것)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자아존중감 척도」(최보가, 전귀연, 1993)를 송기현(2005)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개인적자아존중감(5문항)과 사회적자아존중감(7문항)의 점수를 말한다.

⑤ 공격성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및 그 밖의 상징적 행위들로서, 타인을 해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어떤 비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기피적 자극에 대한 보복적 반응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김현수, 1997).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신체적 공격성(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행위)과 언어적 공격성(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은 「공격성 검사」(노안녕, 1983; 한상준, 1991; Buss & Durkee, 1957)를 김재근(1993)이 재구성한 「공격성 검사」의 하위요인 가운데 신체적 공격성(10문항)과 언어적 공격성(13문항)의 점수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

1) 공격성의 개념 및 하위 유형

(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연구자마다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그 정의도 다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에서 벗어나 공격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내리려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Dollard 등(1939)은 공격성을 좌절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즉 좌절의 강도의 비례에 따라 공격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공격성을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반응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으로 Eron(1987)은 공격성을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나게 하려는 의도된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나, 의도는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화나게 하는 행동’으로 공격성의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공격적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여 공격성을 정의한 것으로, 공격성을 측정하고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특성으로 정의하는 장점은 있지만 의도적인 상해는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김지현, 2006). 따라서 Berkowitz(1962)은 공격성이란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진 목표 지향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여 역시 의도라는 말을 강조하였으며, Aronson(1980)도 공격성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여 행위자의 의도를 함께 고려한 개념으로 그 폭을 확대했다.

Bandura(1973)는 모호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격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정의를 내리고자 시도함으로써 공격성을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 구별했다. 첫째는, 공격성을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반응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이다. 공격성이란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하거나, ‘사람을 상해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는, 공격성을 반응과의 특성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의도까지 포함하는 정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격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박덕규(1986)는 공격성이란 가정, 학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개인이나 사물에 대한 가해 행위로서 특히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위축감을 갖게 하는 의식, 또는 무의식적인 행위라고 하였고 김명숙(1989)은 공격성을 다른 사람을 신체적 심리적으로 상해할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곽금주(1992)는 타인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을 지닌 신체적, 언어적 행동과 위협적인 자기방어 태도 뿐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담은 사고 및 정서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현수(1997)는 공격성을 타인에게 신체적·언어적 및 그 밖의 상징적 행위들로서, 타인을 해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동들뿐만 아니라 어떤 비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기피적 자극에 대한 보복적 반응으로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격성이란 말은 폭력, 공격성, 파괴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 등에 의하며 타인, 자기 자신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심한 손해, 상해,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인간 본성의 하나로 생각되는 공격성의 경향, 공격 행동의 원동력이 되는 본능적 충동 즉 공격 본능 또는 그 공격 본능이 지니는 힘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최애나, 2007).

(2) 공격성의 하위유형

공격성의 유형 분류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Buss와 Durkee(1957)는 공격성의 유형을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 죄의식 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폭행, 간접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 언어적 공격성을 합쳐 공격성이라 하고 원한과 의심을 합쳐 적의성이라 하였다. 이 때 적의성은 공격성 반응의 일부분으로 표출되지 아니한 지속적 태도이며 내적으로 강화된 공격성이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폭행은 타인에게 행하는 육체적 폭력행위를 말하며,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악의 있는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을 말하며, 흥분성은 쉽게 화를 내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부정성은 협동하기를 거절하거나 반항하는 것을, 원한은 타인을 믿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세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투사하는 것을, 언어적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을 죄의식은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공격성을 적대적인 공격성과 도구적인 공격성으로 나눈 연구자들(Dodge & Coie, 1987; Hartup, 1974)도 있는데 적대적 공격성은 좌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이는 분노나 방어적인 반응을, 도구적 공격성은 원하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보이는 고의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Rule과 Nesdale(1976)은 공격성을 분노 공격성과 비분노 공격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분노 공격성은 좌절의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분노에 의한 공격성이며, 비분노 공격성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격성을 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Kauffman(1981)은 표현방법에 따라 수동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자기 파괴적 공격성으로 분류했는데 첫째, 수동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나 수동적으로 자신의 공격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수동적으로 자신의 공격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고

집, 꾸물거리기, 거부적 태도, 부정적 반응, 상대방 무시 등의 공격성을 말한다. 둘째, 직접적 공격성으로는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물건 파괴를 들 수 있다. 언어적 공격성은 소리 지르기, 놀리기, 욕하기, 시비 걸기, 말다툼하기, 거친 태도로 명령하기, 남을 모욕하기 등을 말한다. 신체적 공격성에는 위협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다른 사람에게 물건 던지기, 먹살 잡기 등이 있으며 물건파괴 혹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기 파괴적 공격성은 공격적 행위가 자기에게 가해지는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거나, 물어뜯는 등의 가해적 행동을 말한다.

Feshbach(1983)는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과 도구적 공격, 합법적 공격과 비합법적 공격으로 구분하였는데 즉각적인 화와 충동에 의해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를 적대적 공격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위협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동을 도구적 공격으로 정의하였다. 합법적인 공격은 그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내에서의 행동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에 의한 행동이며, 비합법적인 공격은 사회인들에게 용인되지 않는 위해 행동이다.

Dodge와 Coie(1987)는 반응적(reactive aggression) 공격성과 비반응적(proactive aggression) 공격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사회정보처리 양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은 지각된 위협이나 도발을 야기시킨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며, 비반응적 공격성은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학생의 공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성을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고, 여학생들에게 드러나는 공격성 유형의 하나로서 관계적 공격성의 개념을 소개했다. 외현적 공격성이란 개인이 공격 유발 대상에게 직접 행하는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을 포함한 개념이며, 관계적 공격성은 집단 내에서 집단의 힘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한 개인을 위협하거나 소외, 배제하려는 집단적인 공격의 형태이며, 이러한 행동들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Nelson & Crick, 2002).

Frodi, Macaulay, 그리고 Thome(1977)은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직접적 공격성, 간접적 공격성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대상에게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반응을 말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심리적 혹은 사회적인 해를 끼치는 모든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해 반응을 말하며, 직접적 공격성은 화나게 만든 사람, 혹은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말하고,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을 유발한 사람이 아닌 다른 표적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표적이 아주 없는 공격적인 행동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공격성의 유형은 연구자들의 관점이 반영되어 상당히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2) 공격성의 원인

공격성은 왜 생겨나며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리고 공격성에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격성의 근원과 발달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느 요인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공격성의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물학적 원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생물학적 요인들은 체격이나 근육조직과 같은 신체적 조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신경구조, 유전자 등으로 설명된다.

첫째, 신체적 조건은 체격이나 근육조직과 같은 신체적 조건이 공격성의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다. 건강하지 못한 아동들은 건강한 아동에 비해 감정적으로

더욱 격하고 불안정하며, 7-11세의 건강한 아동은 그 외의 연령의 아동이나 건강하지 못한 같은 나이의 아동에 비해 더 안정적이다(최선이, 2002). 또한 배고픈 상태에선 더 공격적이라고 하며 그 외 소화불량, 병적인 편도선, 결함이 있는 눈, 약한 치아, 감기 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혹은 내장의 불규칙한 운동에 의해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아동은 공격성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장병립, 1980). 또한 아동이 피로할 때나 아플 때 등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공격적 행동을 자극하게 되어 강화요인이 된다는 것이다(전정미, 1893). 청소년기에 신체적으로 조숙한 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에서 지배적이고 자기 주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은숙, 2007; Feshbach, 1964). 그러나 인간의 경우, 신체적 취약성을 도구나 무기의 사용으로 극복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둘째, Maccoby와 Jacklin(1974)은 남성 호르몬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가정하에 연구를 한 결과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하면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호르몬과 관련하여 Carins(1972)는 새끼를 뱀 동물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하여 그 새끼의 공격성이 높아짐을 밝혀냈다(정현웅,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보다 근래에 남성호르몬이 공격성을 촉진한다는 생물학적 결정설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이 보다 공격적인 것은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효과는 사회적 경험이나 습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남성 호르몬 단독으로 인간의 공격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셋째, 신경학적인 설명으로서, 시상하부의 특정부위가 손상되거나 전기충격을 받으면 공격행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다. 모든 유기체가 시상하부에 대한 자극에 동일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Kaada(1967)는 신경구조가 공격성과의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에서 동물의 시상하부에 전극을 장치하고 전기적 자극을 가했을 때 공격, 수비, 싸움 등의 태세를 갖추었다고 하였으며, Gross(1972)는 뇌 손상으로 비정상적인 뇌파를 보이는 아동은 종종 자극통제를 하

지 못하고 공격성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고, Moyer(1971)도 동물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관찰한 결과 뇌의 특수 부위에 자극을 받으면 공격성을 일으키는 신경 부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한윤영, 2010에서 재인용).

넷째, 유전에 의한 설명으로서, 동물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교배를 통해 공격성이 유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격성 자체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공격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조건이 유전되는 것으로 본다. Cairns는 유전자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쥐의 실험에서, 공격적인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와 비공격적인 암컷과 수컷의 짝짓기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공격적인 암컷의 새끼 쥐가 비공격적인 암컷의 새끼 쥐에 비하여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조태임, 2005에서 재인용).

(2) 심리사회적 원인

공격성을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또는 외적 자극인 환경이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 가운데 내적작업모델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인지적인 공격성 획득을 강조한 Bowlby(1973)의 내적작업모델이론이다.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 스타일은 아동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한다(Patterson, 1982).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타인이 믿음직하지 못하며 냉혹하다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공격성과 연관이 되는 인지인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게 된다(Bowlby, 1973). 즉,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나 교사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으로 하여금 분노를 느끼게 함으로써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작업모델을 형성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엄성애, 2003). 또한, 사회인지이론가들은 공격성이 잘못된 사회인지적 판단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서는 공격적인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또래의 행동의 원인을 지나치게 적의적인 것

으로 돌리는 의도판단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과 공격적 반응을 형성하고 또한 또래로부터 공격적 청소년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적의적 반응을 낳게 하여 공격적 청소년의 적의적 사회 인식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김전숙, 2006).

Dollard 등(1939)에 의해 제시된 욕구좌절이론은 공격행동의 발생에는 항상 좌절이 선행되며, 역으로 존재하는 좌절은 항상 어떠한 공격성의 형태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좌절이 항상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공격적 행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단서, 즉 현재는 또는 과거의 분노나 공격성과 관련된 자극이 선행해야 한다고 보아 공격성 표출에 대한 수정된 입장을 제시하였다(Coie & Dodge, 1998). 예를 들어 결핍의 좌절감은 만족감을 얻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며, 만족감이 얻어지지 않거나 그 과정에서 저지를 당했을 때에는 방해 또는 제지에 의한 공격성을 유발시키게 된다(박덕규, 1986). 이 이론에서는 목표를 얻으려는 욕구나 간섭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심리적 긴장상태인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좌절을 가져온 대상이나 다른 사람, 혹은 물체에 공격을 가하게 만든다고 본다. 즉,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좌절된 경험이나 부모로부터 원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경험, 혹은 관심부족과 부적절한 환경 및 상호작용 등을 통해 거부되거나 좌절된 경험이 아동으로 하여금 반발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물체나 대상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Davis & Cummings, 1994).

마지막으로 Bandura(1973)를 중심으로 한 사회학습이론은 아동 안에 잠재된 원인을 찾기보다 외적인 원인제공에 의해 공격성이 학습되어진다고 설명한다. 공격은 관찰, 모방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으며, 강화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 인간의 공격성은 사회적, 상황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소들 사이의 복잡한 작용의 결과로서의 사회적 행동을 학습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Taylor, 1988). 이는 아동의 공격성이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 및 모방함으로써 학습되고, 허용이나 보상

을 통해 강화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아동이 보고 모델링하여 신체적인 공격성을 사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공격성에 대한 무언의 허용이 강화로 작용하여 공격적인 아동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처벌적인 행동을 보이는 교사의 태도를 통해서도 학습 및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엄성애, 2003). 이와 같이 공격성은 모방과 강화에 의해 획득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아동이 성장하고 있는 사회 환경은 공격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정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가족 상호작용의 양상으로부터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격적인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언어적 설명보다는 신체적 벌을 가하는 등 보다 강압적인 대응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아동에게 처벌을 가하는 부모의 행동은 공격행동의 모델로 작용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이 타인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을 아동에게 인식시키게 된다(김민정, 2000).

Loeber와 Hay(1997)는 모든 아동이 공격성에 있어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각 개인에 따라 공격성 지속과 변동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고, 일찍이 Dunn(1985)은 공격성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 환경적 요인일 것이라고 하며 상황의 변화는 공격성에 있어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공격성은 개인의 정서조절이나 기질적인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빈곤, 사회구조, 가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발전될 수 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3) 여학생의 공격성

(1) 여학생 공격성의 특성

공격성 관련 연구에서는 흔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다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남녀 모두 공격적이며 적의적일 수 있다고 보고 여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예를 들어, Campbell, Muncer, 그리고 Coyle(1992)는 일반적으로 여학생은 감정표현적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도구적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Owens(1995)는 학교에서의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격성에 대한 차이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신체적 공격 형태를 좀 더 사용하였으며 나이가 많은 여학생일수록 남학생보다 간접적인 공격 형태를 좀 더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rick과 Grotpeter(1996)는 남학생은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여학생은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공격성의 유형을 도발적 물리형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잠재적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으로 분류했던 박창환(1993)도 다른 유형에서는 남학생 공격성이 높았으나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억제하기 어려운 폭발형 공격성과 화나게 만든 사람이나 대상을 간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해를 끼치는 우회적 공격성에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다른 유형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은 대체로 간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공격성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이란 Feshbach와 Sones(1971)는 “상처를 주는 것을 간접적인 의미를 통하여 나타난 사회적 배제(추방, 제외)와 거절은 신체적 공격과 같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은 공격하고자 하는 동기나 악의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지곤 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운 사건이다.”라고 말하며 간접적 공격성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예: 소문 퍼뜨리기, 집단에서 제외시키기) 공격하는 것이다 하였다. Frodi, Macaulay와 Thome(1977)도 간접적 공격성은 공격성을 유발시킨 사람이외의 다른 대상에 대한 것이거나 혹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는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였으며 Lancelotta와 Vaughn(1989)은 인격 비방(거짓말,

험담하기), 신뢰의 배신(또래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기), 공격자에 의한 사회적 제외, 그리고 타인이 희생자를 멀리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조작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이란 Crick과 Grotpeter(1995)는 또래관계 혹은 소속감과 같은 감정에 손상을 입히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으로 의도를 지녔으며 상대방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자존감 등을 하락시킴으로써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나 사고 및 정서를 공격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수용 받으려는 감정으로 손상시키거나 또래관계를 조작하고, 손해를 끼침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행동으로 또래집단 내에서 행해지는 과별을 이용한 압력이나 배제 등으로 또래집단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영역 다툼 공격성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교사나 연구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집단 놀이나 활동관계의 참여 배제, 또는 공공연한 따돌림 등으로 표현된다고 했다. 그러한 행동들은 자존감이나 또래관계에 피해를 주려는 시도로 또래를 무시하기, 침묵으로 대하기, 집단 안에서 또래의 지위에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해 그 또래에 대한 거짓말이나 소문 퍼뜨리기, 또는 집단 놀이를 할 때에 제외시키기 등을 사용하며 Nelson과 Crick(2002)은 이러한 행동들은 목표를 성취하거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격성(social aggression)이란 Underwood(1997)은 Cairns, Neckerman과 동료들(1997)이 발표한 정의를 조금 확장시켜 “사회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위나 이 두 가지 모두의 손상을 입히는 것을 통하여 직접적이 된다. 그리고 언어적 거절, 부정적인 얼굴표정이나 신체적 움직임이나 독설적인 소문, 사회적 배제와 같이 좀 더 간접적인 형태로써 직접적인 형태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사회적 공격성은 관계성, 조작, 소문 퍼뜨리기, 사회적 배제(언어적이나 비언어적으로 할 수 있다)의 행동들을 포함하며 그들의 사회적 관계성, 또래 지위, 또는 우정에 상처를 입힘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의도한 행동들이다. 사회적 공격성은 확실하게 우정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며 가해자들 또한 사회적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위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는 명확하게 사회적 배제의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하는 유일한 범주이며 사회적 공격성은 관계성조작의 외적, 내적 형태 모두를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회적 공격성은 화를 부추기는 것이 있을 때에도 평정을 잃지 않고 또래그룹으로부터의 따돌림을 당하지 않게 하면서 화난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함으로써 자신만의 소속과 수용됨을 재확인하는 전략도 될 수 있다고 하였다(Underwood, 2003).

이상의 간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공격성은 또래집단의 사회적 조작이라는 면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전형적이라는 양 측면에서는 비슷하다 그러나 관계적 공격성은 그 시작을 알지 못하는 간접적 공격성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사회적 공격성 역시 간접적 공격성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이고 신체언어를 포함한 확대된 관계적 공격성으로 볼 수 있다(Underwood,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 공격성을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포함한 확대된 관계적 공격성으로 보는 사회적 공격성으로 볼 수 있다.

(2) 여학생 공격성의 원인

Erickson(1963)은 청소년기를 정체감의 위기를 체험하는 시기이며 반항적이고 소속에서의 이탈행위를 자행하고 신체와 정서가 급변하며 사회성이 미성숙한 시기로 특징되는 시기라고 한다(김연수, 1985에서 재인용).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는 분노 및 공격성은 스스로 자아발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 당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자기주장의 방해, 간섭, 압박, 이유 없는 꾸중, 불공평한 취급, 흥미 없는 충고 등에 직면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다(김전숙, 2006; 정원아, 2002).

이러한 공격성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에서는 간접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사회적 공격성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

지는 사춘기의 성숙과 사회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Underwood, 2003)와 또래관계(Craig, Pepler, Connolly, & Henderson, 2001), 사회평가불안(Kashdan & Herbert, 2001)이 여학생의 사회적 공격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모와의 관계를 보면,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무수히 많은 극적인 변화들을 주는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들의 지지와 그들의 반응을 평가해 주는 것에 의존함과 동시에 그들의 자치권에 대한 강한 열망을 수용하도록 부모들이 양육하는 습관을 바꾸도록 압박한다(Holmbeck, Paikoff, & Brooks-Gunn, 1995).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감소한다(Larson, Richards, Moneta, Holmbeck, & Duckett, 1996). 그러나 이 부모들과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여학생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대한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보내는 시간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학생들이 부모의 지지에 의존하고 부모와 함께 대인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여학생의 공격성과 연관될 수 있다(Underwood, 2003).

둘째, 또래와의 관계를 보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가족보다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자신들의 우정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지만 동시에 남학생들보다 대인관계적 어려움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Underwood, 2003).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또래관계에서의 충돌도 여학생의 사회적 공격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Craig et al., 2001).

셋째, 최근 연구들에서 사회적 공격성의 발생에 특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평가불안이 대두되고 있다(Loudin, Loukas, & Robinson,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Marsee, Weems, & Taylor, 2008). 사회평가불안은 사회공포증의 핵심적 인지적 특징이자 장애요소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높

은 수준으로 특징지어진다(Kashdan & Herbert, 2001). 공격성에 대한 사회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의해 어느 정도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 타인의 의도에 대해 적대적 귀인을 하는 개인은 실제로 아무 것도 의도되지 않았을지라도, 보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Crick & Dodge, 1994). Loukas 등(2005)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공격성과 외현적 공격성의 증가에 사회 평가 불안과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사회 평가 불안은 사회적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외현적 공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Marsee 등(2008)은 불안이 사회적 염려를 통해 특히 반응적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줄을 확인하였다.

2.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며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된다.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는 사람은 행동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가치판단은 중요하다. 이처럼 자신의 특성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적 의미가 부여된 것을 우리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라고 한다(장연심, 2003).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에 나타나는 개인적인 가치판단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은 인생의 전 과정을 걸쳐 진행되지만 특히 청소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강조되고 있다(이태인, 1996).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과 다른 적응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수준의 우울증, 부정적 정서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과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제행동에 접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높은 자아존중감은 인생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적절한 정도의 모험을 감행하게도 한다(조학래, 1996). 따라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의미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오래전부터 문제행동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하영희 & Carolyn, 2004),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격성에 관한 많은 연구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이며, 자아존중감과 아동의 공격성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김애경, 2001b; Donnellan et al., 2005; Malete, 2007).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만족하고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Brown, & Mankowski, 1993), 타인에게 해로운 공격행동을 적게 하여 공격성 수준 및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고(김애경, 2001b; 하영희 & Carolyn, 2004; McMahon & Watts, 2002), 일상생활에서도 적응된 행동을 보인다(이경님, 2006). 또한, 최정훈(1973)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개인적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의식을 가지며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의식을 가지지 못하며 부조화와 방어성과 왜곡성을 가지게 되므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소미강(2008)의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중 방임,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 자아존중감 변인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중 사회적 존중감이 낮을수록 전체 문제행동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적대감을 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신종순, 1991). 이는 이들이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상응하는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응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참여한다는 Kaplan(1980)의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비행 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원호택, 1991; 유종관, 1996; 정혜승, 1996)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누적된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와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요인이라 규정하기는 어렵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은 실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더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괴롭힘 가해 집단이 일반 집단과 유사한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김혜원, 이해경, 2000; 이상균, 1999; 이춘재, 박금주, 2000),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이 더 공격적이라는 상반된 결과(Baumeister, Smart, & Boden, 1996)도 제시되고 있다.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했을 때 자기의 처지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자아상으로 나타나는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감을 갖을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자아존중감은 분명 공격성

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인들의 공격성의 변동에 매개요인으로써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부모애착

1) 부모애착의 개념

인간은 사회생활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장, 발달하게 된다. 출생과 더불어 부모나 가정을 모방하거나 동일시함으로써 조건형성과 통찰과정을 거쳐 인지구조가 변화되고, 가정 분위기, 질서 및 행동양식을 모방하고 학습하며, 생활습관, 대인관계, 도덕성이 형성된다. 즉, 인간은 성장과정을 통해 가정환경과의 접촉이 시간적으로 보아 가장 많은 뿐만아니라 인간행동의 형성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성장시기를 가정에서 대부분 보낸다는 점으로 보아 자아개념 형성에 있어서 가정환경의 교육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강효숙, 2003).

Bowlby(1969, 1973)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애착은 영아기의 자녀와 양육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양육자와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한다. 영아의 요구에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반응을 하는 양육자는 그들의 자녀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모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기대, 대인관계의 지침이나 각본이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의 경우,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타인을 그들의 요구에 반응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애착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어 탐색하거나 놀이를 하게 되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거나 또래와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도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된다(Kerns,

1996; Sroufe, 1988). 반면, 불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경우에는 자신을 중요하지 않고 무능하며, 타인을 자신의 요구에 거부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는 내적 작업모형을 형성하여, 탐색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고, 조화롭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여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반면에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감을 발달시켜 이것을 후에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되고(Putallaz & Heflin, 1990),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거부당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Gottman, 1991).

2)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1)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그 중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를 아동의 성격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인간의 심리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물리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 조건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즉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으로서 물리적 환경은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심리적 환경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강효숙, 2003).

Collins와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 수준이 낮은 반면에 부

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최희영(2005)도 부모가 자녀에 대해 무관심했을 때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아존중의 결정 요인은 부모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인정 정도, 허용 행동의 명백한 한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존중과 관용도,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 등의 조합이다. 또한, Papini와 Raggman(1992)의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걸친 종단적 연구를 통해 가족기능과 지각된 유능감, 사회적 역할 요구 등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초기 청소년기에 부모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현희와 오미경(1993)도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 부모애착과 공격성의 관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이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직접적으로 청하는 빈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모는 매우 중요한 대상이며, 부모가 자신을 항상 지켜준다는 확신은 이들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정녀, 최해림, 2005).

많은 선행연구는 부모와의 애착이 공격성을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며,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문제행동 유발에 강력한 예언요인이 되고, 긍정적인 관계는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정녀, 최해림, 2005; Malet,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해 종단연구를 한 박영신, 김의철과 김영희(2007)는 부모의 애정과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따라서 일탈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애착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은 아동은 자신감이 있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어서 힘든 상황

에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Armsden, & Greenberg, 1987).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인 청소년일수록 또래관계에서 유능감이 높으며, 내재화 행동과 일탈행동이 낮았다(Allen, Moore, Kupermine, & Bell, 1998). 반면, 민감하지 않고 비순응적인 양육으로 인한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인 파괴적, 독단적, 통제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박정녀, 최혜림, 2005; 장휘숙, 2003; Turner, 1991). 이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청소년은 이와 달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가지기 때문이다(Allen et al., 1998). 즉, 청소년의 주요대상인 부모와의 애착은 공격성을 포함한 행동문제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전연진, 박진아, 2007). 소미강(2008)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훈육 및 감독이 필요하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어 설득시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변동에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자신도 부모를 믿음직스럽게 느끼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과 부모에게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받는다는 소외감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부모애착이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4. 또래관계스트레스

1) 또래관계스트레스의 개념

또래란 서로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성숙 수준이 비슷하여 일상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Perry & Bussey, 1984). 그리고 또래는 첫째, 사회적 지원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며 서로에게 지지, 격려, 피드백을 해줌으로써 스스로 유능하고 매력적이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 주고 둘째, 사회적 비교 기능을 가지며 셋째,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의 기능을 가지고 넷째, 서로에게 강한 강화자가 된다(최윤미, 1988).

이러한 또래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주며, 자아개념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Bukowski & Hoza, 1989). 또,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며 힘든 일이 생기면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Parker & Asher, 1987).

청소년 또래관계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첫째,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가 확대된다.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렇듯 교제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사회적 세계의 확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확장된 사회적 세계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나 그러한 관계에서 만족감을 경험하기도 하며, 이러한 관계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자발성을 기초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다른 대인관계들에 비해 상호의존성이 높으며, 이 상호의존도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 교우관계는 가족이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와 달리 그 속성상 특별한 사회적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또래들과 선택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의 주목적은 수단적이기 보다 사회적-정서적인 것이다. 친구관계는 어떤 배후의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상호작용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 친구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래관계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경험한다. 넷째,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청소년들은 우의, 가치확인, 친밀감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의존한다. 또래친구들은 자기자신을 측정하고 점검하는 하나의 커다란 투사 스크린의 역할을 하며, 자기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증거가 된다. 다섯째, 또래집단에 대한 강한 동조경향을 지닌다. 같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서로의 가치관이나 태도, 취미나 흥미 등이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또한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되려고 한다. 여섯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또래관계를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원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부모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들이 자신들의 친구들을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 자기 친구들을 부모가 인정해 주면, 부모-자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자기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면, 부모로부터 자신의 또래들이 수용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이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강한 부정적 정서반응을 보인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또래관계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 질에 달려있다. 개방적이고 상호존중하며 친밀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그들의 또래 친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부터 거부되고 반사회적 또래집단에 속하기 쉽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또한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많은 연구에서도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성 친구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동성친구와 비교했을 때,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고애자, 1990 중학교 학생들이 이성 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처럼,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집단은 이전보다도 더욱 구조화되어 조직화된다. 따라서 개인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이전보다도 한층 더 명확하게 위치가 뚜렷해진다. 동성 친구 관계는 친구간에 생길 수 있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다. 즉, 친구가 놀린다든가 친구와의 싸움 등으로 인해 학생이

스트레스로 지각한 것을 포함한다(진은경, 1991). 또한 오늘날의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모든 성적인 자극이 노출되어져 있고 성적 관심의 표현이 질적으로 너무 지나쳐 있기 때문에 문제는 크다고 한다(김소영, 1993). 이에 이성 친구 관계는 이성 친구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한 것으로, 또래상호간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학생이 지각한 스트레스를 말한다(송금희, 1998).

또래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또래에게 친밀감을 지각하는 수준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윤미경, 1999: 이은혜, 고윤주, 1999)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욱 친사회적으로 또래에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최진희, 1999: Asher, 1983: Dodge, 1983). Kenny(1987)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나 친구의 도움을 더 구하고 더 높은 애착의 질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아동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따라, 그들은 친구들과 더 많은 비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래관계는 놀이보다는 대화 위주로 이뤄지고, 친구들이 함께 자아탐색을 하고, 갈등을 해쳐 나가면서 서로를 지지해 주게 된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우정의 질이 남학생들의 우정의 질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지만, 동시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대인 관계적 어려움에도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Underwood, 2003).

2) 또래관계스트레스와 부모애착,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1) 또래관계스트레스와 부모애착의 관계

다양한 방법을 거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애착의 정도와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에서 실시된 한 종적 연구(Zimmerman et al., 2001)를 살펴보면,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낮선 상황’검사에 참여한 후, 그들이 16세가 되었을 때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을 받고 또래사회문제 해결 임무(제 3세계에서의 생태학적 상황이 가미된 복합 컴퓨터 시뮬레이션)에도 가담하였다. 그 결과 아빠와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16세라는 그 또래들 사이에서도 마치 유아들처럼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인애착면접에서도 불안정한 애착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또래문제 해결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질 경우 더 쉽게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설문방법을 통한 조사에서도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의 연관성이 나타났다. Armsden 과 Greenberg(1987)는 부모와 또래에 대한 애착에 있어 3가지 측면(신뢰, 배척, 대화)을 알아보기 위해 자가보고 측정 도구인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개발하였다. 부모와 또래 애착의 상관도는 예상한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범주는 .24부터 .47이었다. 10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작은 표본연구에서 Schneider와 Younger(1996)는 청소년들이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에 대해 답한 것과 그들의 대인관계 능력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배척 특히 아빠의 배척은 저조한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애착의 긍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사회 적응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독일에서의 연구(Zimmerman et al., 2001)를 다시 보면, 성인애착면접에서 안정적인 애착관계로 측정된 경우 사회적 거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삽화에 대해 순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Grossmann(1991)은 안정애착으로 분류된 아동들은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며 많은 친구들과 우정을 맺는다고 하였으며, Shulman(1994)은 안정애착을 보인 아동이 또래관계를 맺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고하고 있고(박영신, 2001 재인용), Elicker, Englund 와 Sroufe(1992)는 안정애착 아동들이 불안정 애착 아동들보다 더 많은 수의 친구를 가졌으며, 부모에 대한 애착은 친구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윤소영, 2000 재인용).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자녀 애착은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또래관계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면서 청소년은 가정보다 또래집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김성연, 1998), 친구관계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누가 지지하는 것보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했을 때 자아존중감 향상의 효과가 크다. 비슷한 연령의 친구 관계는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과 모범이 되고, 사회적 압력으로도 작용하면서 인간의 사회 및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 각자가 자기를 스스로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윤진, 1993).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또래와 친밀감을 더욱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Hunter & Youniss, 1982),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를 발달시키며 학교,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애착을 형성하면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키고,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잘하게 되고 문제행동을 덜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완정, 이은영, 1988), 즉, 청소년들의 자기 평가 기준의 많은 부분은 친구 관계라는 환경과 개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친구관계는 청소년시기에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기본적인 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 관계와의 만족스러운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친구관계에서의 소외 혹은 고립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가치인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자아평가는 친구들이 제공하는 자아존중감의 내면적 경험이며, 우정은 개인에게 수용받는다라는 느낌과 따뜻함,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을 제공하고 친구는 소속감과 이해, 원조, 피드백 등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준다. 결과적으로 친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최희영, 2005).

또한, 대인관계 불안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은 공통적으로 자기는 혼자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대인관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남들과는 아주 다른 존재라고 느낀다. 따라서 대인관계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Crozier, 1979; Jones & Briggs, 1984),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함으로써(Clark & Arkowitz, 1975) 결국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지혜(1997)는 아동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어서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조절변인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으며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으며, 스트레스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자기 존중감 수준이 높으면 문제 중심대처를 사용하여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스트레스 경험이 많고 자기 존중감 수준이 낮으면 정서중심대처를 사용하여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하미진, 2001; 최미례, 2000; 한건환 외, 2004)도 보고되고 있다.

Kliwer 등(1992)도 238명의 8세~16세까지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증상(우울, 불안, 행동장애)의 관계에서 중재요인으로서 통제위와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결과 여학생에게서 자아존중감이 스트레스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에 완충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reger(1995)는 29명의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우울점수가 높으며 우울점수가 높은 학생은 자가 보고된 스트레스도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3) 또래관계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

Hall이 청소년기를 가르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표현했듯이 이 시기가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시기인 만큼 신체적 생리적으로는 성인과 다름없지만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자립 면에서는 아동기와 비슷하게 의존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 속에서 청소년은

불안과 좌절을 경험하며 주위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대하여 민감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됨으로써 청소년은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진로, 또래관계, 성문제, 학업성취문제, 가족문제 등 많은 스트레스에 봉착하기도 한다(김명희, 2003).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상실은 폭력을 비롯한 비행의 원인이 되며 대처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또래관계, 교사와의 문제, 이성문제, 성격문제, 용돈, 건강, 외모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강수방, 1987), 스트레스는 남녀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폭력행동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미리, 2001). 따라서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또래관계의 성질은 청소년의 공격적 위험행동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먼저, 또래에 의한 거부는 소수의 또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또래에 의해 적극적으로 배척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Coie et al., 1992; Keenan et al., 1992).

사춘기 초기에는 대개 같은 성의 또래집단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며 아직도 가정이 삶의 중심이다. 동성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을 익힌 후엔 점차 이성또래와의 관계형성을 시도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이성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신체적, 생리적 성숙에 따라 성적 에너지가 많아지고 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등의 두드러진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이경희(1996)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 학업성취 문제와 이성친구 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의 불완전한 성의식이 성적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성적 갈등을 성행동으로 표출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신체적 폭력과 연결됨을 시사한다(김명희, 2003). 노정화(2002)는 남, 여학생 모두 이성친구 교제경험이 있거나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비행이나 공격성의 외현화 문제가 많이 나타나 비행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지지 제공자는 동성친구의 지지가 4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성친구의 순으로 나타나(이난영, 2001) 비행청소년의 경우 이성친구를 포함한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김영선, 2000)에서도 공격성 하위변인간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여학생의 모든 공격성 하위변인과 관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드러내며 공격성 유형에서도 외현화 공격성 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김효정, 1999)와도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대인관계 지향적이며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땐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수준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공격성 점수의 차이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공격성 점수에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김영선, 2000).

위와 같은 견해를 종합했을 때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중 이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와 동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하위요인으로 하는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분명 공격성의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84개 중학교(남녀공학중학교 68개교, 남자중학교 9개교, 여자중학교 7개교) 가운데 남녀공학중학교 2개교와 여자중학교 2개교를 편의표집한 뒤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 2학년 여학생(약 60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중학생 1,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라는 이질적인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친구관계가 조직되거나 재편성되며 발달적으로 부모의 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 등의 뚜렷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보다는 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선정된 학교 1,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결과 566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528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은 528명이었으며, <표 Ⅲ-1>에는 최종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Ⅲ-1>에 보이듯이 최종 연구대상 528명 중 학년 분포는 1학년이 147명으로 27.8%, 2학년이 381명으로 72.2%로 나타났고, 초경경험이 있는 학생은 490명(92.8%), 초경경험이 없는 학생은 38명(7.2%)으로 나타났다. 초경경험이 있는 학생 490명 중 초경시기는 초등6학년(41.0%), 중등1학년(33.1%), 초등5학년(14.1%), 중등2학년(7.7%), 초등4학년(3.1%), 초등1학년(0.6%), 초등3학년(0.4%), 초등2학년(0%)의 순서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55.7%, 고졸 31.3%, 대학원졸 8.1%, 중졸 3.2%, 초졸 1.7%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전문대를

<표 III-1> 연구대상의 기초사항

구 분	내 용	n	%	구 분	내 용	n	%
학년	1	147	27.8	가족 형태	할아버지	470(0) 58(1)	89 11
	2	381	72.2		계	528	100.0
	계	528	100.0		할머니	419(0) 109(1)	79.4 20.6
초경경험	유	490	92.8		계	528	100.0
	무	38	7.2		아버지	38(0) 490(1)	7.2 92.8
	계	528	100.0		계	528	100.0
초경시기	초등1	3	0.6		어머니	30(0) 498(1)	5.7 94.3
	초등2	0	0		계	528	100.0
	초등3	2	0.4		연니	357(0) 130(1) 34(2) 7(3)	67.6 24.6 6.4 1.3
	초등4	15	3.1		계	528	100.0
	초등5	69	14.1		오빠	396(0) 124(1) 8(2)	75.0 23.5 1.5
	초등6	201	41.0		계	528	100.0
	중등1	162	33.1		여동생	359(0) 144(1) 23(2) 1(3) 1(4)	68.0 27.3 4.4 0.2 0.2
	중등2	38	7.7		계	528	100.0
	계	490	100.0		남동생	322(0) 190(1) 14(2) 1(3) 1(4)	61.0 36.0 2.7 0.2 0.2
					계	528	100.0
아버지의 교육정도	초졸	9	1.7		기타	511(0) 5(1) 7(2) 3(3) 2(4)	96.8 0.9 1.3 0.6 0.4
	중졸	17	3.2		계	528	100.0
	고졸	165	31.3				
	대졸(전문대 포함)	294	55.7				
	대학원졸	43	8.1				
	계	528	100.0				
어머니의 교육정도	초졸	11	2.1				
	중졸	16	3.0				
	고졸	230	43.6				
	대졸(전문대 포함)	244	46.2				
	대학원졸	27	5.1				
	계	528	100.0				

()의 숫자는 함께 사는 가족의 유, 무와 그 수를 말함.

포함한 대줄 46.2%, 고줄 43.6%, 대학원줄 5.1%, 중줄 3.0%, 초줄 2.1%로 나타났다. 함께 주거하는 가족은 할아버지(11%), 할머니(20.6%), 아버지(92.8%), 어머니(94.3%)로 나타났으며 또한, 언니가 1명(24.6%), 2명(6.4%), 3명(1.3%)로 나타났고, 오빠가 1명(23.5%), 2명(1.5%)으로, 여동생이 1명(27.3%), 2명(4.4%), 3명(0.2%), 4명(0.2%)으로, 남동생이 1명(36.0%), 2명(2.7%), 3명(0.2%), 4명(0.2%)으로, 기타 1명(0.9%), 2명(1.3%), 3명(0.6%), 4명(0.4%)으로 나타났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 및 유형을 알아보고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뿐 아니라 인과관계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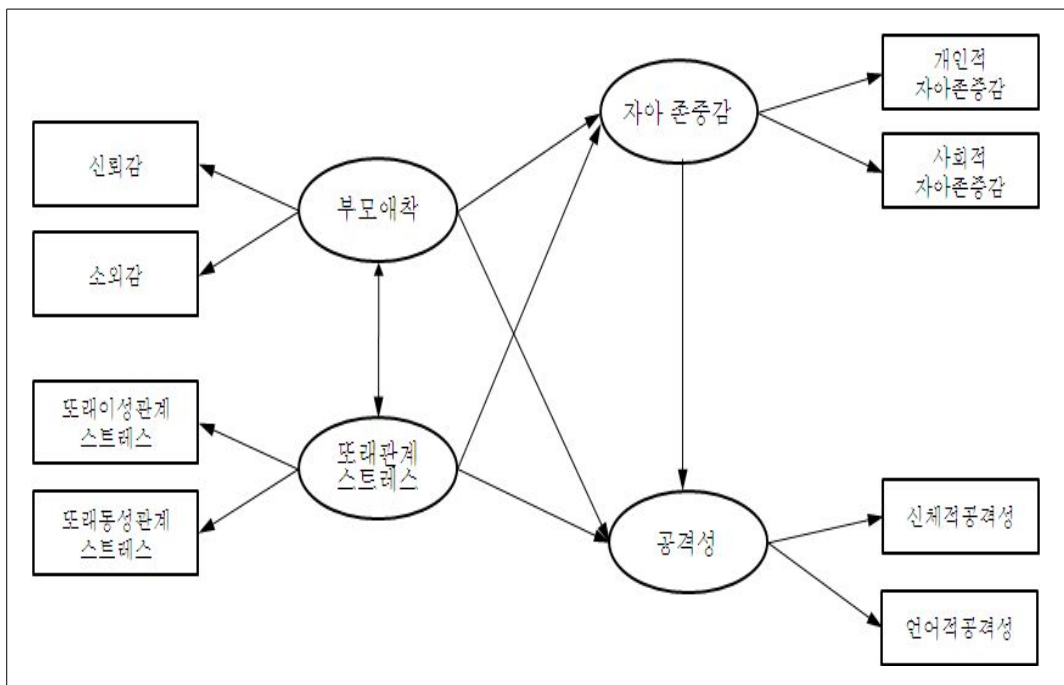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가 있는데 외생변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고 주기만 하는 변수를 말하며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 주거나 영향을 받기만 하는 변수를 말한다. 흔히 통용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해 보면 외생변수는 독립변수와 같다. 그러나 내생변수는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는 매개변수와 영향을 받기만 하는 종속변수 모두 포함한다(이기중, 2005). 본 연구에서는 <표 III-2>와 같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외생변수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내생변수에 해당된다. 내생변수 중 자아존중감은 부모애착 및 또래관계스트레스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이고 공격성은 최종적인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에는 잠재변수와 관찰변수가 있는데 잠재변수는 직접적으로 관찰 또는 측정할 수 없는 변수이며 관찰변수를 통해 측정된다.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외생변수이면서 잠재변수인 경우 외생잠재변수라고 하는데 이는 내생변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적 연

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표 Ⅲ-2> 변수의 종류

외생/내생변수 (exogenous/endogenous variable)	잠재변수 (latent variable)	관찰변수 (observed variable)
외생변수	부모애착	부모신뢰감
		부모소외감
	또래관계스트레스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
내생변수	자아존중감	개인적자아존중감
		사회적자아존중감
	공격성	신체적공격성
		언어적공격성



[그림 Ⅲ-1] 연구모형

3. 변수와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듯이 연구대상에 대한 6개 기초사항 문항과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들로 구성되었다. <표 Ⅲ-3>은 본 연구의 변수와 측정도구들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각 측정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3> 변수와 측정도구

변수		측정도구			
잠재변수	관찰변수	도구명	하위척도	문항수	총 문항수
부모애착	부모신뢰감	부, 모 애착 척도	신뢰감	10	16
	부모소외감		소외감	6	
또래관계 스트레스	또래이성관계 스트레스	스트레스 지각 척도	대인관계 (10문항 중 2문항)	2	10
	또래동성관계 스트레스		대인관계 (10문항 중 8문항)	8	
자아존중감	개인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	개인적	5	12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7	
공격성	신체적공격성	공격성 척도	신체적	10	13
	언어적공격성		언어적	13	

1) 부모애착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옥정(1998)이 번안 사용한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부, 모, 또래 애착 척도 개정본(IPP-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하위요인을 신뢰감과 소외감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신뢰 영역 10문항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자신도 부모를 믿음직스럽게 느끼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고, 소외영역 6문항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전체 문항이 역채점 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에게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여학생의 부모애착 점수를 산출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여학생의 부모애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모애착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부모애착의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신뢰감	1, 2, 3, 4, 6, 9, 11, 13, 14, 16	10	.97
소외감	5, 7, 8, 10, 12, 15	6	.95
계		16	.98

-역채점 문항 : 2, 5, 6, 7, 8, 10, 11, 12, 15.

2) 또래관계스트레스

청소년의 또래관계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호택과 김순화(1985)의 「스트레스 요인 질문지」와 최혜림의(1986)의 「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응질문지」, 그리고 Mechanic(1972)의 질문지를 박선희(1991)가 수정, 보완한 학교생활, 대인관계, 자신문제, 환경문제, 가정생활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스트레스 지각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각척도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 10문항을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2문항과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 8문항으로 구분하여 또래관계스트레스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영역 2문항은 이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묻는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가 높고,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 영역 8문항은 동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가 높다고 해석된다.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여학생의 또래관계스트레스 점수를 산출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여학생의 또래관계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또래관계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5>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 α 는 .60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양옥승, 1997).

<표 III-5> 또래관계스트레스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 α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3, 8	2	.63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	1, 2, 4, 5, 6, 7, 9, 10	8	.94
계		10	.94

3)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보가와 진귀연(1993)이 Coopersmith(1967)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보완하여 송기현(2005)이 사용한 개인적, 사회적, 가정적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하위요인을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개인적 자아존중감 영역의 5문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반적인 자아상에 대해 묻는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적 자아존중감이 높아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의 처지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자아존중감 영역 7문항은 친구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해석된다.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산출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 α
개인적 자아존중감	2, 4, 6, 9, 11	5	.90
사회적 자아존중감	1, 3, 5, 7, 8, 10, 12	7	.95
계		12	.96

4) 공격성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격성 검사」(노안녕, 1983; 한상준, 1991; Buss & Durkee, 1957)를 김재근(1993)이 재구성하여 사용한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진 「공격성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하위요인을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보았다. 신체적 공격성 요인의 10문항은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묻는 문항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공격성이 높고, 언어적 공격성 요인의 13문항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사용한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여학생의 공격성 점수를 산출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여학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I-7>과 같다.

<표 III-7> 공격성 측정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하위영역	문항 번호	문항수	Cronbach α
신체적 공격성	1, 3, 5, 7, 9, 11, 14, 17, 19, 21	10	.93
언어적 공격성	2, 4, 6, 8, 10, 12, 13, 15, 16, 18, 20, 22, 23	13	.92
계		23	.96

-역채점 문항 : 1, 5, 10, 16, 23.

4.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09년 11월 9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로 편의표집으로 선정된 남녀공학중학교 2학교와 여자중학교 2학교의 1, 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록>에 제시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먼저 기초사항 질문지를 제외한 4개의 측정도구들은 순서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3유형으로 편집하여 인쇄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설문지 작성상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내 여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수행한 결과 작성소요시간은 총 20~30분정도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11월 2일부터 2009년 11월 7일까지 5일간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고 담임교사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조사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600명의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배부 후 2주일 후에 연구자가 재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배부한 총 600부의 설문지 중 566부(94.3%)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반응을 검토하여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를 무효자료로 처리하였다.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설문지의 기준은 질문지의 한 페이지 이상에서 한 가지 반응에만 편향 표기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경우, 또한 한 문항에 두개를 응답한 경우 그리고 그 외 신뢰성이 의심되는 반응이었다. 그 결과 최종 유효자료로 확정된 528부(88%)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SPSSWIN

10.1 K 프로그램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또한,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 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WIN 10.1 K 프로그램과 LISR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여중생들의 학년·초경경형·초경시기·부모의 교육정도·가족형태·형제유무 등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사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각 측정도구들은 개발과정에서 타당화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뢰도만 분석하였다. 신뢰도(reliability)는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재고 있느냐와 관련된 것으로서 측정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즉 측정오차 없이 정확히 측정하였느냐의 문제이다. 신뢰도 계수의 추정방법에는 재검사신뢰도(test-retest reliability)와 동형검사신뢰도(parallel-form reliability), 반분검사신뢰도(split-half reliability),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가 있다(성태제, 2010).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간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문항내적일관성신뢰도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들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변수들의 기초통계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표 III-8>은 각 변수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편포도), 첨도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사용되는 측정치들은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만족해야 한다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적합도 지수인 χ^2 의 해석과 모수 추정방식의 선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선 적합도 지수인 χ^2 를 유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다변량정규성이 가정되어야 한다. χ^2 값은 관찰변수들의 다변량정규성으로부터의 이탈에 민감하고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

<표 III-8> 관찰변수들의 기초통계치

변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편포도	첨도
부모애착	신뢰감	528	20.00	80.00	46.13	18.45	-.005	-1.503
	소외감	528	12.00	48.00	26.76	10.14	-.04	-1.41
또래관계 스트레스	또래이성 관계 스트레스	528	2.00	8.00	5.90	1.69	-.56	-.54
	또래동성 관계 스트레스	528	8.00	32.00	20.70	7.65	.12	-1.49
자아존중감	개인적 자아존중감	528	5.00	20.00	11.03	4.11	.18	-1.09
	사회적 자아존중감	528	7.00	28.00	16.22	6.01	-.10	-1.38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528	10.00	40.00	28.80	7.76	-.21	-1.16
	언어적 공격성	528	13.00	40.00	29.01	6.86	.06	-1.32

한 편향분포에서는 χ^2 값이 작아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된다(양병화, 2006). 다변량정규성을 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며, 조합된 변수들의 결합분포도 정규분포를 이루며, 모든 이변량산점도는 선형이며, 동분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3개나 그 이상의 변수에 대해 결합빈도분포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다변량정규분포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변량비정규성은 일변량분포의 조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일변량분포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첨도와 왜도값을 점검하는 방법이 사용되는데, 다만 어느 정도의 비정규성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몇 가지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도의 절

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제안하고 있으며, 첨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지만, 보통 첨도의 절대값이 8.0~20.0까지를 극단적인 첨도라고 제안하고 있다(최수정, 2007). 또한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가 1보다 작게 나타날 경우 모수추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이 보고되고 있다(곽수란, 2006). 본 연구에서 일변량정규성을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왜도(편포도)와 첨도값이 절대값 1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모수추정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므로 모든 단일변수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넷째, 여중생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계수 값을 사용하였다. 상관관계는 모형에 투입되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위한 투입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결과이다. Pearson 적률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연속성을 띠고, 관계가 직선성을 가질 때만이 타당하게 두 변수 간의 연합의 정도를 반영한다(이기중,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측정치는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은 타당한 방법이다.

다섯째, 여중생 공격성에 자아존중감,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모형 안에서 잠재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과 잠재변수의 관찰변수에 대한 가설을 동시에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은 실험연구가 어렵거나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기법이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다변량 분석으로써 구체적인 분석과정 및 전체는 다음과 같다(이기중, 2000).

(i) 이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은 상관행렬을 사용하였다. 상관행렬은 공통의 범위를 갖고 있다 때문에 모형내의 계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상관행렬은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누어줌으로써 각 변수의 측정척도의

영향을 제거하여 표준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관행렬은 Pearson 적률 상관계수 값을 사용하였다.

(ii) 구조방정식모형에 있어 모수 추정은 최대가능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채택하였다. 최대가능법은 실제로 관찰된 표본자료와 여러개의 잠재적 모집단 추정값 간의 차이를 계량화하여, 값의 차이가 표집변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최대가 되는 모집단 추정값을 모집단의 모수값이라고 선택하는 것이다. 최대가능법으로 모집단 모수값을 추정하려면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사용된 변수가 연속적이어야 하고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임을 검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각 변수의 단일변수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다중변수 분포가 정상이면 모든 변수의 단일변수 분포는 정상분포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달리 말해, 모든 단일변수 분포가 정상분포이어도 이것들이 같이 모여 이루는 다중변수분포는 정상분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표 III-8>에서 제시도니 왜도(편포도)와 첨도는 단일변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따라서 정상분포에 대한 필요조건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찰변수가 모두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최대가능법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iii) 구조방정식모형 추정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은 t -value와 상관관계 분석에 적용하는 유의수준인 .05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 평가를 위한 유의수준은 평가지수에 따라 각기 다르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㉔ 통계검증을 통한 모형평가 지수인 χ^2 값은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검증이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에 비해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을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실험연구에서와 같은 통계검증을 위해 설정되는 .01이나 .05보다는 큰 값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설정되는 유의수준은 대개 .30이상이며 때로는 .50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값이 설정되기도 한다.

㉔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GFI는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일반적으로 .90이상이면 합치 정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㉕ RMR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값이 .05미만이면 설정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분석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격성 전체 및 하위유형별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고 하위유형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분석 결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t 값
정도	공격성	528	2.51	.62	1.09	3.48	-
유형	신체적 공격성	528	2.88	.78	1.00	4.00	19.18***
	언어적 공격성	528	2.23	.53	1.00	3.08	

*** $p < .001$.

<표 IV-1>에 보이듯이 공격성 전체 평균은 2.51($SD=.62$)로 나타났으며 하위유형인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각각 2.88($SD=.78$)과 2.23($SD=.53$)으로 신체적 공격성이 언어적 공격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9.18$, $p < .001$).

2.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는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이고 각각의 잠재변수들은 2개씩의 관찰변수로 측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관찰변수들의 상관관계

관찰변수	X ₁	X ₂	X ₃	X ₄	Y ₁	Y ₂	Y ₃	Y ₄
신뢰감 (X ₁)	1.000							
소외감 (X ₂)	.914*	1.000						
또래이성관계 스트레스 (X ₃)	-.651*	-.662*	1.000					
또래동성관계 스트레스 (X ₄)	-.850*	-.863*	.710*	1.000				
개인적 자아존중감 (Y ₁)	.796*	.797*	-.643*	-.807*	1.000			
사회적 자아존중감 (Y ₂)	.842*	.834*	-.699*	-.882*	.875*	1.000		
신체적공격성 (Y ₃)	-.799*	-.805*	.607*	.807*	-.720*	-.786*	1.000	
언어적공격성 (Y ₄)	-.822*	-.839*	.675*	.867*	-.758*	-.829*	.895*	1.000

* $p < .01$.

<표 IV-2>에 보이듯이 본 연구에서는 8개의 관찰변수간의 상관관계는 -.882 ~

.914로 $p < .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뢰감은 소외감과 .914로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651로 부적 상관을,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와 -.850로 부적 상관을,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796으로 정적 상관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842로 정적 상관을, 신체적 공격성과 -.799로 부적 상관을, 언어적 공격성과 -.822로 부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외감은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662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와 -.863으로 부적 상관을,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797로 정적 상관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834로 정적 상관을, 신체적 공격성과 -.805로 부적 상관을, 언어적 공격성과 -.839로 부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부모애착에서 신뢰감과 소외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고 자신도 부모를 믿음직스럽게 느끼는 신뢰감이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관심을 받는다는 소외감이 높아진다. 또한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은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낮아진다.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은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애착의 신뢰감과 소외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는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와 .710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643으로 부적 상관을,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699로 부적 상관을, 신체적 공격성과 .607로 정적 상관을, 언어적 공격성과 .675로 정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는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807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882로 부적 상관을, 신체적 공격성과 .807로 정적 상관을, 언어적 공격성과 .867로 정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또래관계스트레스에서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인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동성친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인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가 높아진다. 또래관계스트레스의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는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 또래관계스트레스의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와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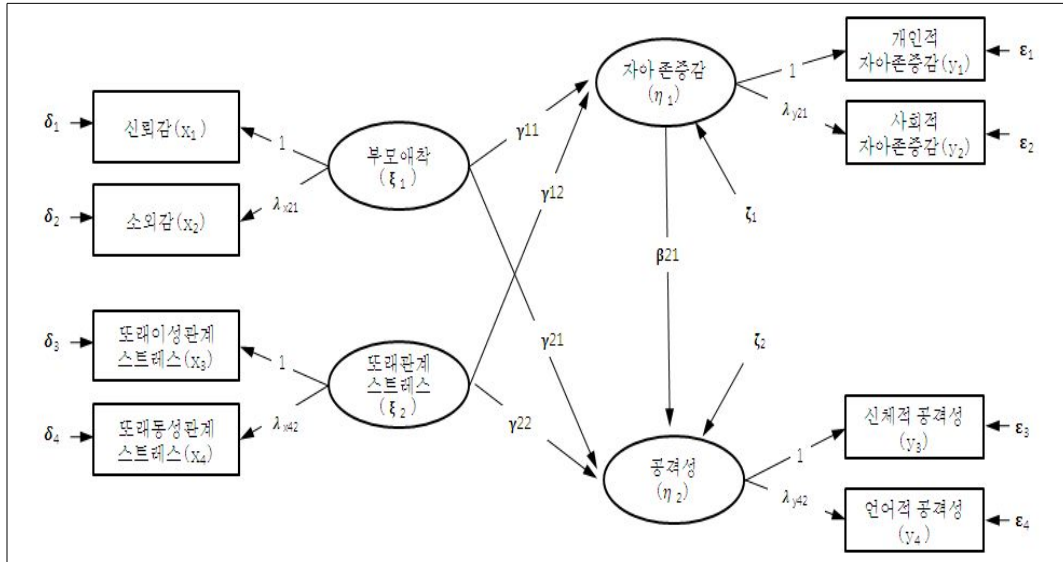
개인적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875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과 $-.720$ 으로 부적 상관을, 언어적 공격성과 $-.758$ 로 부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공격성과 $-.786$ 으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언어적 공격성과 $-.829$ 로 부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자아존중감에서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의 처지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개인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 자아존중감의 개인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역시 .895로 정적 상관의 매우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공격성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행위의 신체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성도 높아진다.

3.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인과분석

1) 구조방정식모형

이 연구를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과 그에 포함된 모수지정은 [그림 IV-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V-1] 공격성 구조방정식모형

2) 구조방정식모형 평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모형 적합도 지수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구조방정식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GFI	RMR
35.69($p=.00$)	14	0.98	0.0086

(1) Chi-square(χ^2)

구조방정식 전체모형을 평가할 때 설정되는 영가설은 이론에 의해 설정된 모형이 시사 하는 모형 공분산행렬이 모집단 변수들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집단공분산행렬과 같다는 것이다. 즉 설정된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공분산행렬은 모집단에서의 변수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행렬에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가설이 맞다면 χ^2 값은 0이 된다. 또한 실험연구와 같은 다른 통계 검증은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만 구조방정식에서는 이론적으로 설정된 모형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모형과 잘 합치된다는 영가설에 초점을 두므로 영가설을 수용하는데 의미를 갖는다(이기중, 2005).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 평가에 있어 χ^2 값이 크고 확률 값이 유의하게 작으면 모형이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큰 χ^2 값이 산출된다는 것은 ①모형설정이 잘못되었거나, ②모형검증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일 수 있다. 이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위배되거나, 표본추출이 잘못되어 관찰자료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하거나, 제안모형에 대한 개념설정의 오류일 가능성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James et al., 1982; Mulaik, 1987; 배병렬, 2000에서 재인용). 따라서 구조방정식모형의 전체 모형평가와 관련해 검증 통계량의 분포를 알 수 있는 것은 χ^2 가 유일하며,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영가설을 검증한다고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χ^2 분포뿐이며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Arbuckle, 1997; Bentler, 1985; Bollen, 1989; Joreskog & Sorbom, 1993; Muthen & Muthen, 1999; 이기중, 2001에서 재인용).

χ^2 의 유의수준을 .30으로 적용할 때, 여중생 공격성 모형은 χ^2 확률값이 35.69(P=.00)이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χ^2 는 사례수에 민감하게 그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례수가 클 경우 다른 평가지수를 고려하여 모형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배병렬, 2000).

(2) 합치도(GFI: Goodness of Fit Index)

GFI는 표본공분산행렬이 모형공분산행렬에 의해 예언되어지는 정도를 나타낸다. 표본공분산행렬의 분산과 공분산이 이에 대응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원소들로 예측되어지는 정도를 1을 기준으로 표시한 것이 합치도 지수이다(이기중, 2005). GFI의 범위는 0-1 사이의 값을 갖지만 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GFI가 음수이면 모형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χ^2 값과는 달리 표본크기나 다변량 정상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모형의 합치도를 평가할 수 있다(배병렬, 2000). 모형평가에 대한 유의수준을 .90으로 볼 때, 본 연구모형은 .98로 매우 적합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잔차제곱평균제곱근(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RMR(Root Mean Square Residual)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표본공분산행렬은 모형에 의해 시사되는 모형공분산행렬의 차이이므로 그 값이 작을 때 적합한 모형이 되며, 그 값이 커질수록 모형이 나빠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0에 가까울수록 설정된 모형은 수집된 자료와 잘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배병렬, 2000). 설정된 유의수준 .05를 적용할 때, 본 연구모형은 .0086로 매우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여중생 공격성 관련변수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설정한 모형 합치도 지수를 종합한 결과, 잠재변수 4개 측정변수 8개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매우 적합한 연구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의 가정이 충족되고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면 각각의 추정치를 확인해야 한다. 모수추정치가 이론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

는 추정치를 위반추정치라 하는데, 이러한 위반추정치가 나타나면 모형의 합치도가 적합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모수추정치를 결과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배병렬, 2000).

<표 IV-4>는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나타내고 있다. 측정모형에서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 중 한 변수를 1로 고정하였다. 측정변수 값을 1로 고정하는 것은 잠재변수가 설명 가능한 척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1로 고정된 참조변수는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들의 추정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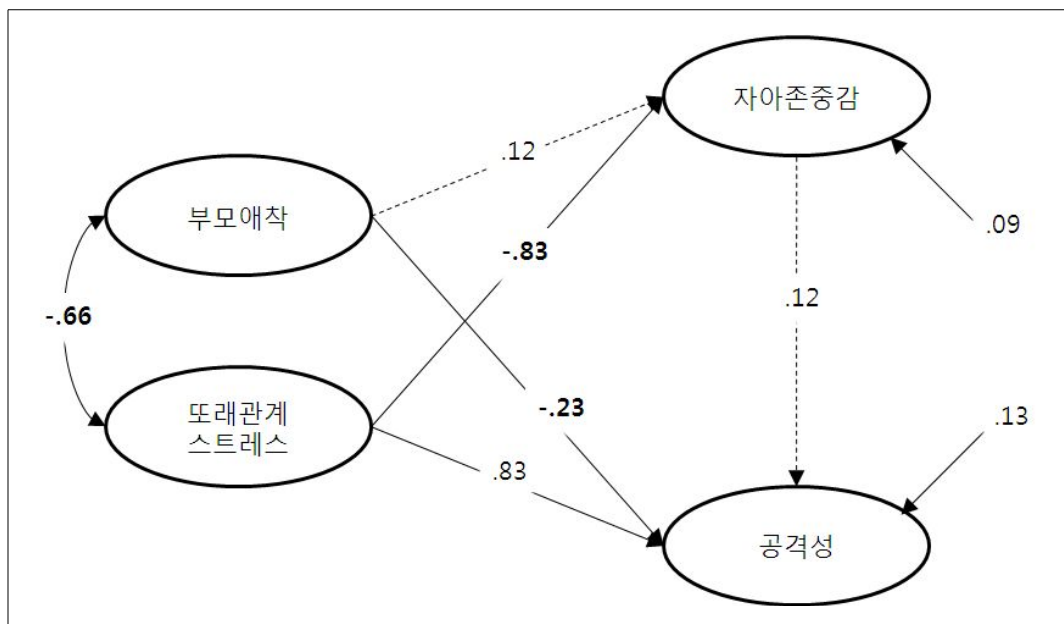
<표 IV-4>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외생변수		
관찰변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신뢰감	1.00	--
소외감	1.01(49.20)*	--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	1.00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	--	1.28(23.35)*
내생변수		
관찰변수	자아존중감	공격성
개인적 자아존중감	1.00	--
사회적 자아존중감	1.08(39.51)*	--
신체적 공격성	--	1.00
언어적 공격성	--	1.06(43.03)*

()는 t -value * $p < .001$.

<표 IV-4>의 결과에서 제시되었듯이 외생변수에서는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

이 연구에서 여중생 공격성의 관련변수 구조방정식모형 추정결과는 [그림 IV-2]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림 IV-2]의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이며, 굵게 표시된 계수값은 부적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이다.



[그림 IV-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부모애착→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자아존중감→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또래관계스트레스→공격성의 경로는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부모애착→공격성, 또래관계스트레스→자아존중감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부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경로를 보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경로는 또래관계스트레스→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로 표준화추정치가 .83이다. 또한 여중생 공격성에 관련변수 구조방정식모형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방해오차(ζ_1)가 .09로, 공격성의 방해오차(ζ_2)가 .13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본 모형에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여중생 공격성 관련변수의 전체, 직접, 간접효과에 대한 표시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공격성에 미치는 전체효과가 가장 큰 것은 또래관계스트레스이며, 부모애착은 공격성에 부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변수이다. 간접효과에 있어서는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5> 전체, 직접, 간접효과

추정변수	전체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효과경로
부모애착	0.12(1.02)	0.12(1.02)	--	부모애착→자아존중감
	-0.22(-1.88)	-0.23(-2.04)*	0.02(1.08)	부모애착→공격성
또래관계 스트레스	-0.83(-6.47)***	-0.83(-6.47)***	--	또래관계스트레스→자아존중감
	0.73(5.99)***	0.83(3.59)***	-0.10(-0.77)	또래관계스트레스→공격성
자아존중감	0.12(0.84)	0.12(0.84)	--	자아존중감→공격성

() t -value; * $p<.05$; ** $p<.01$; *** $p<.001$.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중생의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은 어떠하며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여중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경로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의 변수들이 여중생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사연구로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84개 중학교 중 편의표집을 통하여 선정된 4개 학교의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의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중생의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

본 연구에서 여중생 528명의 공격성을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로 측정한 결과 평균 2.51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 연구(류용현, 2002)에서 남학생의 전체 평균 점수 2.49와 여학생의 전체 평균 점수 2.50과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여중생 공격성의 유형에서는 신체적 공격성($M=2.88$)이 언어적 공격성($M=2.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들은 수다와 같은 관계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거나,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우정이나 또래관계에 대한 손상이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손지영, 김현철, 2004; Kempes, Matthys, Engeland, & Vries, 2005). 그리고 French, Jansen, & Pidada(2002)의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행동은 여학생들 간의 또래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배제, 소문 퍼뜨리기, 우정관계 손상 등의 양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즉, 여학생의 공격성은 주로 신체적인 것보다 언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여학생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자신의 내면적 문제들을 남학생 못지않게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별의 특성 상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신체적 공격성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여학생의 공격성은 신체적인 것보다 언어적인 측면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성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대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신체적 공격성을 행사하여 주변에서 자신을 무서워하도록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잘 드러내는 경우에 비해 여학생들은 경우 주로 ‘보복’이 목적으로 굳이 주변에 알릴 필요나 스스로 드러낼 필요도 없어 교사나 학부모가 이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여중생 신체적 공격성에 대해 간과되어 왔다고 여겨진다. 더 나아가 여학생 공격성은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혹은 남자친구를 가로채는 등 ‘관계’를 어지럽히는 대상을 상대로 ‘차별과 응징’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의 적’, 왕따로 장기화되어 집단으로 행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학생의 공격성은 관계적 공격행동인 언어적 공격성이 신체적 공격성과 동시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학생 공격성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위협하고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성과 신체적 상해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는 신체적 공격성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것과 다르게 여학생의 공격성이 언어적 공격성보다는 신체적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데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체적 공격성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 외에도 자존심과 자기보호 능력감에 손상을 주게 되어 자칫하면 지속적 정서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남학생들끼리의 폭력 사건으로 치부되었던 ‘학교 폭력’과 같은 공격성 문제가 여학생들에게도 괄목하게 드러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최근 여자청소년의 공격성을 포함한 외현화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이(문화관광부,

2004) 여학생이 보이는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

여학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불안정적으로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애착 대상에 대해 적대감과 분노감을 발달시켜 이것을 후에 또래관계에 적용하게 되고(Putallaz & Heflin, 1990),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거부당하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Gottman, 1991)와 일치한다. 즉, 가족 내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애착관계가 후일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며 타인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을 잘 인식하고 주위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소속감을 갖게 됨으로 스트레스상황에 덜 놓이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으로서 심리적환경이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효숙, 2003)와 청소년이 부모 애착안정성이 높을수록 자기 가치감이 높고 불안 및 우울 증상 수준이 낮아 정서적 적응이 양호하다는 연구(Papini & Raggman, 1992)를 지지한다. 즉, 청소년이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애착과 공격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박정녀, 최해림, 2005; Malet, 2007)와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전연진, 박진아,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가족의 기능(정재임, 2000; Hart et al., 2000)이나 부모애착(Dryfoos, 1989; Hazan & Shaver, 1990; Underwood, 2003) 등과 같은 가정환경 변인과 우정, 친구로부터의 지지의 환경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있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한다. 즉, 청소년 초기 단계인 중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오는 독립에의 욕구가 상충하여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공격성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가정의 안정된 분위기와 자녀를 이해하려는 부모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청소년들의 행동문제를 줄여줄 수 있음을 시사 하는 결과라 하겠다.

또래관계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원만한 또래애착을 형성하면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자아개념을 증진시킨다는 연구(이완정, 이은영, 1988)와 대인관계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Crozier, 1979; Jones & Briggs, 1984), 자신의 행동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결국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는 연구(Clark & Arkowitz, 1975)와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석지혜, 1997)와 일치한다. 즉, 청소년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또래집단과 관계를 갖기를 희망하여 부모와 가족보다는 또래집단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증가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관 형성과 사고, 감정을 공유하고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기술을 배우게 됨으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집단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집단에서 친구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받는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추정

할 수 있다.

또래관계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의 거부(Kupersmidt et al., 1990), 부정적인 또래관계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oie et al., 1992; Keenan et al.,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친구로부터 수용도가 높고 인기 있는 아동은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지도력이 있는 반면 친구들에게 거부되며 친구지지가 낮은 아동은 문제행동 수준이 높고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적응행동을 도와주며, 친구관계 내에서의 거절은 공격성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Ladd, & Burgess, 2001), 공격적 행동이 집과 학교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연구(Adinkrah, 1995; David & Kistner, 2000; Schissel, 2000)에 의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적자극과 충동이 직접적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또는 이성에 대한 접근의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시기로 청소년의 관계 속에 이성친구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성과의 만남이 증가되면서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크고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오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경향이 높거나, 문제 상황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지연시키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기는 부모나 교사에 비해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비슷한 연령의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친한 친구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는 것은 공격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중생이 또래관계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중생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의 근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며,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다양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으며(이민아, 1999; Rigby & Slee, 1993), 낮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애경, 2001b; 신중순, 1991; 최정훈, 1973; Donnellan et al., 2005;

Malete, 2007)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며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누적된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와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학교내 폭력 사건 및 왕따 현상 등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 만족하고 존재가치를 인정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타인에게 해로운 공격행동을 적게 하여 공격성 수준 및 반사회적 행동 수준이 낮고 일상생활에서도 적응된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어떠한 상황에 부딪칠 때 그 상황으로부터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더 쉽게 공격성을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에 자아존중감을 키워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상담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격성과 관련변수들의 인과관계

이 연구는 여중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탐색하였다. 여중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부모애착 변수는 부모의 신뢰감, 부모의 소외감으로 구분하였고,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또래이성관계스트레스, 또래동성관계스트레스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적자아존중감과 사회적자아존중감, 공격성은 신체적공격성과 언어적공격성을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과 같은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변수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측정변수 모두 모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8개의 측정변수를 4개의 잠재변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모형은 적합도에 있어 양호하였으며, 추정된 모수 즉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측정모수(λ)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각 잠재변수에 속한 측정변수가 그 잠재변수를 잘 대표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모형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있음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여중생 공격성모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연구 결과 여중생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는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또래관계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고 효과는 정적 효과로 나타났으나,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와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효과로 나타났다. 각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2개이다. 부모애착 요인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공격성에는 유의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직접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표 IV-2>에서 제시된 것처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여중생의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부모애착이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표 IV-5> 전체, 직접, 간접효과에서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여중생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부모애착은 공격성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부모자녀간의 부정적인 관계는 문제행동 유발에 강력한 예언요인이 되고, 긍정적인 관계는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박정녀, 최해림, 2005; Malet,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박영신과 그의 동료(2007)들이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해 종단연구 결과 즉, 부모의 애정과 정서적 지원은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이며 일탈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결과와도 일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요대상인 부모와의 애착은 공격성을 포함한 행동문제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이소희 외, 2002),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전연진, 박진아, 2007)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여중생의 공격성은 부모애착이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2개이다. 또래관계스트레스 요인의 영향력은 자아존중감은 부적 효과를 여중생 공격성에는 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애착과 마찬가지로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여중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직접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인과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중생의 공격성은 자아존중감과 상관관계는 있으나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표 IV-5> 전체, 직접, 간접효과에서 또래관계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 효과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여중생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은 여중생은 공격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과이다. 이는 부정적인 또래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청소년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비행과 공격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강수방, 1987; 이미리, 2001; Coie et al., 1992; Keenan et al., 1992)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여학생의 모든 공격성 하위 변인과 관계가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나타내며(김효정, 1999),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김영선, 2000)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여중생의 공격성은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여중생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여중생의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표 IV-2>에서 보듯이 모형에 포함된 모든 측정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과관계를 살펴보면,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상정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는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더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서수균, 권석만, 2002), 괴롭힘 가해 집단이 일반집단과 유사한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김혜원, 이해경, 2000; 이상균, 1999; 이춘재, 박금주, 2000),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집단이 더 공격적이라는(Baumeister et al., 1996) 선행연

구들과 일관성을 보인다.

반면,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적대감을 품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은 공격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신종순, 1991) 부정적인 자아개념에 상응하는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반응으로 반사회적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고(Kaplan, 1980),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낮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발한다(원호택, 1991; 유종관, 1996; 정혜승, 1996) 등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누적된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와 타인은 물론 스스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의 어려움을 지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공격적, 적대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나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요소들을 고려할 때, 여중생에게 있어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하거나 더 나아가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부모애착의 정도와 또래관계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이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청소년 초기이므로 뚜렷하고 명백한 자아상을 갖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여중생의 공격성 정도는 낮아지고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여중생의 공격성 정도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은 부적인 상관을, 또래관계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그 각각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에서도 그 정도를 조금씩 달리 보이고는 있지만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므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공격성의 변수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본 연구는 변인들 각각의 영향 뿐 아니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적용하여 변인간의 관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중생들의 공격성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여중생의 공격성 연구는 공격성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격적인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공격성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남녀공학중학교 2개교와 여자중학교 2개교에 재학중인 여중생 528명(1학년 147명, 2학년 381명)을 대상으로 여중생 공격성의 정도와 유형은 어떠하며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여중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간의 경로를 탐색해 봄으로써 여중생 공격적 행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여중생 공격성의 심각성을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여중생을 도와주고자 하는 교사나 부모 그리고 교육이나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 및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첫째, 여중생의 공격성 정도와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 여중생 528명의 공격성 평균은 2.51로 나타났으며 여중생 공격성의 유형에서는 신체적 공격성($M=2.88$)이 언어적 공격성($M=2.23$)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중생의 부모애착, 또래관계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한 결과, 여학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변수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부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을, 부모애착과 공격성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또래관계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또래관계스트레스와 공격성은 유의한 정적 상관

을,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 공격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중생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경로로 부모애착이 공격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한 부적 효과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한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와 여중생 공격성 간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애착 정도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중생과 부모와의 애착이 클수록 여중생은 공격적 행동이 덜 나타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졌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여중생의 공격성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또래관계스트레스는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여중생과 부모애착이 클수록 여중생은 공격적 행동은 덜 나타났으며 부모애착은 자아존중감에 무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또래관계스트레스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공격성은 높아지나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무의미한 효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공격성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많고 적음에 따라 공격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의 원인이 단일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중다요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 역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원인인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을 잘 조절함으로써 날로 더해 가는 청소년의 폭력과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와 지도 대책이 다각도에서 마련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비행에 대한 현황 조사나 원인 규명 등의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공격성의 특성과 원인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에 기초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는 설정된 모형과 변수 내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중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의 방향이나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설계 또는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 변수들 외에 다른 변수가 공격성, 특히 여중생 공격성의 유형을 더 잘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 자아존중감, 공격성을 설문지를 이용하여 변수의 측정치를 수집했다. 특히 본 연구는 여중생의 학교를 통해 여중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여중생의 사회적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동적 관찰과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본 이론적 모형을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모형 분석은 특정지역의 여중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며, 공격성이 높은 임상집단이나 비교적 공격성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공격성 발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한 Loeber와 Hay(1997)의 연구와 여학생의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는 장휘숙과 정윤경(2005)의 선행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학년이나 연령, 또는 학교유형으로 공격성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척도를 살펴보면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비슷한 표현이 많아 연구대상자가 주의 깊게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다른 문항이지만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 이는 공격성 유형을 분류하는 이론이나 방법이 다양하고, 대부분의 척도가 외국의 이론가들이 개발한 척도를 번역하고 수정한 것이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철저한 문항 분석을 통해 표현에 애매모호함이 없도록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며, 연구대상별로 적합한 공격성 척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수방 (1987).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강효숙 (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애자 (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 곽금주 (1992). 공격 영화 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곽수란 (2002). 효과적인 학교 결정요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곽수란 (2008). 학업수행에 따른 학교적응도 추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1), 1-20.
- 구정화 (2000). 청소년의 폭력성 멀티미디어의 수용정도가 폭력성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덕호 (2000). 현실요법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김명숙 (1989).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 예상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명희 (2003). 청소년 신체적 폭력의 예측모형.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민정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성연 (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친밀감 및 신뢰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소영 (1993). 아동의 스트레스와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연수 (1985).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 (2000).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애경 (2001a). 내의통제성, 가족의 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85-196.
- 김애경 (2001b).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 김전숙 (2006).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재근 (1993). 불안과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14(1), 45-64.
- 김효정 (1999). 청소년의 공격성 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노안녕 (1983). 비행 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감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정화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노해숙 (1986).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류용현 (2002).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중독과 공격성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청구

-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문화관광부 (2004). 청소년 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덕규 (1986).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공격성. 서울: 배영사.
- 박선희 (1991).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박영신, 김의철 (1998). 청소년의 비행과 성취행동, 가정환경, 구인양식, 건강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29-53.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종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1.
- 박정녀, 최해림 (2005). 청소년의 부, 모 애착과 자동적 사고 및 공격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49-264.
- 박창환 (1993).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따른 공격행동유형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배병렬 (2000).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서울: 대경.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09-826.
- 석지혜 (1997).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 및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손지영, 김현철 (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 소미강 (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기현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금희 (1998). 중학교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송종용 (1988). 사회적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이 이중관계의

-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종순 (1991).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엄성애 (2003). **영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들**.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옥승 (1997). **유아교육 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 옥정 (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성 (Perceived Competence)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원호택, 김순화 (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1), 43-50.
- 유종관 (1996).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행동특성 비교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경 (1999).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윤소영 (2000). **부모와의 애착이 아동의 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진 (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방향**. **청소년학 연구**, 1(1) 17-26
- 이경님 (2006).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 학회지**, 15(1), 31-44
- 이경주 (1997).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경희 (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기중 (2000). **구조방정식모형**. 서울: 교육과학사.
- 이기중 (2001).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전체모형 평가지표 χ^2 의 사용오류와 교정방안**.

교육평가연구, 14(2), 219-229.

이기중 (2005). 구조방정식모형 인과성, 통계분석 및 추론.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이난영 (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지지 비교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명희 (1989).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장애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청구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이미리 (2001). 초기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폭력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일상생활활동의 중재 효과. 아동학회지, 22(4), 167-188.

이민아 (1999).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완정, 이은영 (1988). 청소년이 지각한 우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학교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25-138.

이은숙 (2007). 그룹홈 아동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1.

이소희, 노경선, 손석한, 옥정, 김광일 (2002). 청소년의 애착상태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41(2), 274-282.

이재원 (1989). 스트레스 유형 및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순 (1988).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요인과 그에 따른 대응행동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춘재 (1999). 학교폭력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움 자료집,

1(1), 11-25.

이춘재, 박금주 (2000). 집단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이태인 (199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 ; 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위한 실험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병립 (1980). **아동심리학**. 서울: 법문사

장연심 (2003).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혜정 (2008).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성역할 정체감, 자기 통제 및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장휘숙 (2003). **애착장애의 치료: 이론에서 실제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장휘숙, 정윤경 (2005). 생물학적 연령과 주관적 연령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69-86.

전연진, 박진아 (2007). 아동기와 청소년기 공격성에 미치는 부모애착과 친구애착의 상대적 영향 분석: 연령차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패널 연구집**.

전정미 (1983). 아동의 공격적 행동의 변인과 그 수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성신여자 대학원.

정원아 (2002). 청소년의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 양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 교육대학원.

정재임 (2000). 청소년의 폭력성 예측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현웅 (2006). 인터넷 중독이 농촌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의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정현희, 오미경 (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정혜승 (1996). 비행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통제성 및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조태임 (2005). 너호흡 수련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제평화대학원.
- 조학래 (1996).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진은경 (1991).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 최미경 (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아의 경험: 단기 중단적 연구와 심층면접.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보가, 전귀연 (1993). 자아존중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4.
- 최선이 (2002).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덕여자여성개발 대학원.
- 최애나 (2007). 음악치료가 소득계층별 아동의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최윤미 (1988). *현대청소년심리학*. 서울: 학문사.
- 최정훈 (1973). *지각심리학*. 서울: 을유문화사.
- 최진희 (1999). 또래 거명에 의한 인기아와 비인기아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최혜림 (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혜림 (2005). 부모애착, 자동적 사고,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599-616.
- 최희영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하영희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친 사회적 행동, 감정 이입, 자기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 하영희, P. E. Carolyn, (2004).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유아학*

- 회지, 25(2), 121-132.
- 한국청소년상담원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상준 (1991). *좋은 생각 실천모형의 정립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 한윤영 (2010). *초등학교 남·여 아동의 기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광식 (1996). *학교 스트레스의 비교연구*. 교육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
- Adinkrah, M. (1995). *Crime, Deviance and Delinquency in Fiji*. Suva: Fiji Council of Social Services.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len, J. P., Moore, C., Kupermine, G. P., & Bell, K. L.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9(5), 1406-1419.
- Arbuckle, J. L. (1997). *AMOS user's guide Version 3.6*. Chicago, IL: Smallwaters Corp.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ronson, E. (1980). *Social Animals*. New York : W. H. Freeman & Company.
- Asher, S. R. (1983). Social competence and peer status: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 *Child Development*, 54(5), 1427-1434.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entler, P. M. (1985).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L. A., CA: BMDP Statistical Software.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1), 5-33.
- Berkowitz, G. S.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 York: Academic Press.
- Berkowitz, L. (1962). *Aggression: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McGraw-Hill.
- Bjorkqvist, K., & Niemela, P. (1992). New trends in the study of female aggression. In K. Bjorkqvist & P. Niemela (Eds.), *Of mice and women: Aspects of female aggression* (pp. 3-1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6), 1335-1354.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Wiley series in Probability and Mathematical Statistics. New York: Wiley.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T.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Buss, A. H., & Durkee, A. (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4), 343-349.
- Campbell, A., Muncer, S., & Coyle, E. (1992). Social representation of aggression

- as an explanation of gender differences: A preliminary study. *Aggression Behavior*, 18(2), 95-108.
- Cairns, R. B., Cadwallader, T. W., Estell, D., & Neckerman, H. J. (1997). Groups to gangs: Developmental and criminological perspectives and relevance for prevention. In D. M. Stoff, J. Breiling, & J. D. Maser (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194-204). New York: Wiley.
- Clark, J. V., & Arkowitz, H. (1975). Social anxiety and self-evaluation of interpersonal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s*, 36(1), 211-221.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8(3), 315-346.
- Cohn, J., & Campbell, S. B. (1992).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infant affect regulation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 *A developmental approach to affective disorders*.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Coie, J. D.,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Coie, J. D., Lochman, J., Terry, R., & Hyman, M. C. (1992). Predicting early adolescent disorder from childhood aggression and peer rej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0(5), 783-792.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Craig, W. M., Pepler, D., Connolly, J., & Henderson, K. (2001). Developmental context of peer harassment in early adolescence : The role of puberty

- and the peer group.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the victimized* (pp. 242-261). New York: Guilford Press.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1), 74-101.
- Crick, N. R., & Dodge, K. A. (1998).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2), 367-380.
- Crozier, R. (1979). Shyness as anxious self-preoccupation. *Psychological Reports*, 44(3), 959-962.
- David, C. F., & Kistner, J. A. (2000). Do positive self-perceptions have a "dark side"?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perceptual bias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4), 327-337.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411.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6), 1386-1399.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6), 1146-1158.
- Dollard, J., Doob, L., Miller, N. E.,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ichard, W. R., Terrie, E. M., & Caspi,

-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Dryfoos, J. G. (1989). *Adolescents at Risk*.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Dunn, J. (1985). Continuities in sibling relationship: Patterns of aggression and friendlines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24(2), 105-119.
-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 (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W. W. Norton & Company.
- Eron, L. D. (1987).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42(5), 435-442.
- Feshbach, N. D. (1964). The function of aggression and the regulation of aggressive drive. *Psychological review*, 71(4), 257-272.
- Feshbach, N. D. (1969).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modes of aggressive responses toward outsiders. *Merrill-Palmer Quarterly*, 15(3), 249-258.
- Feshbach, N. D. (1983).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315-338). New York : Academic Press.
- Feshbach, N. D., & Feshbach, S. (1969).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in two age 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1(2), 102-107.
- Feshbach, N. D., & Sones, G. (1971).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reactions to ward newcom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3), 381-386
- French, D. C., Jansen, E. A., & Pidada, S. (2002). United States and Indonesian Children's and adolescent's reports of relational aggression by disliked peers. *Child Development*, 73(4), 1143-1150.
- Frodi, A., Macaulay, J., & Thome P. R. (1977). Are women always less

- aggressive than men? A re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Gottman, J. M. (1991). Finding the roots of children's problems with other childre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3), 441-448.
- Grossmann, K. E., & Grossmann, K. (1991) *Attachment quality as an organizer of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In P. Morris, J. Stevenson-Hinde, C. Parkes(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New York : Routledge, 93-114.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McNelly-Choque, M. K., Porter, C. L., & McKee, T. 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artup, W. W. (1974). Aggression in childhood: Development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29(5), 336-341.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H. Mussen (Series Ed.), E.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6), New York: Wiley.
- Hazan, C., & Shaver, P. (1990).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lmbeck, G. N., Paikoff, R. L., & Brooks-Gunn, J. (1995).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91-118). Mahwah, NJ : Erlbaum.
- Hunter, F. T., & Youniss, J. (1982). Changes in functions of three relation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6), 806-811.
- James, L. R., Mulaik, S. A., & Brett, J. M. (1982). *Causal Analysis : Assumptions, Models, and Data*, Beverly Hills, Calif. : Sage.

- Jones, W. H., & Briggs, S. R. (1984). "The Self-Other Discrepancy in Social Shyness." In *The Self in Anxiety, Stress, and Depression*, ed. R. Schwarzer. Amsterdam, The Netherlands: North Holland.
- Joreskog, K. G., & Sorbom D. (199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e command language*. Hillsdale, NJ: Erlbaum.
- Kaplan, H. B. (1980). *Deviant behavior in defence of self*. Academic press, New York : Academic Press.
-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 Kauffman, J. M. (1981).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Columbus: Bell & Howell Company.
- Keenan, K., Loeber, R., Zhang, Q., Stouthamer-Loeber, M., & Van Kammen W. (1992). The influence of deviant peers on the development of boys' disruptive and delinquent behavior: *A tempor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7(1), 715-726.
- Kempes, M., Matthys, H., Engeland, V., & de Vries H. (2005).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 A review of theory, findings and the relevance for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1). 11-19.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atal attachment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4), 504-510.
- Kerns, G. (1996). Peer relationships and preadolescent' perceptions of security in the child-mother relationships. *Development psychology*, 32(3), 435-441.
- Kliewer, W., & Sandler, I. N. (1992).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0(4), 393-413.
- Kreger, D. W. (1995).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among graduat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6(1), 345-346.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dd, G. W., & Pettit, G. S. (2002). Parenting an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5. Practical issues in parenting* (2nd ed., pp. 269-309). Mahwah, NJ: Erlbaum.
- Ladd, H.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risks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1), 1579-1601.
- Lancelotta, G. X., & Vaughn, S. (1989). Relation between types of aggression and sociometric status: Peer and teacher percep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1), 86-90.
- Larson, R., Richards, M. H., Moneta, G., Holmbeck, G., & Duckett, E. (1996). Changes in adolescents' daily interactions with their families from ages 10 to 18 : Disengagement and transform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2(4), 744-754.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Psychology*, 48(1), 371-410.
- Loeber, R., & Stouthamer-Loeber, M. (1998). Development of juvenile aggression and violence: Some Common misconceptions and controversies. *American*

- Psychologist*, 53(2), 242-259.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Electronic version].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gender differences*. Stanford, CA: Standford University Press.
- Malete, L. (2007). Aggressive and Antisocial Behaviors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otswana: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chool Based Factor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8(1), 90-109.
- Marsee, M. A., Weems, C. F., & Taylor, L. K. (2008).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154-168.
- McMahon, S. D., & Watts, R. J. (2002). Ethnic identity in urban African American you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4), 411-432.
- Mechanic, D. (1972).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on the presentation of bodily complaint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86(21), 1131~1139.
- Minnett, A. M., Vandell, D. L., & Santrock, J. W. (1983). The Effect of Sibling Status on Sibling Interaction: Influence of Birth Order, Age Spacing, Sex of Child, and Sex of Sibling. *Child Development*, 54(4), 1064-1072.
- Mulaik, S. A. (1987). A brief history of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2(3), 267-305.
- Muthen, B., & Muthen, L. (1999).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 Nelson, K. A., & Crick, N. R. (2002).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Barber (Eds.), *Intrusive parenting :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 Books.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7), 1171-1190.
- Owens, L. D. (1995). *Aggression in school: gender and developmental & differenc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ustralian Guidance and Counseling Association. 5th, Hobart, Tasmania, September 27-30.
- Papini, D. R., & Roggman, L. A. (1992). Adolescent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in relation to competence,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2(4), 420-440.
- Parke,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P. H. Mussen (Series Ed.) and M. Hetherington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pp. 547-642). New York: Wiley.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Patterson, G. R. (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3. Eugene. OR : Castalia.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89-21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gby, K., & Slee, P. T.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Rule, B. G., & Nesdale, A. R. (1976). Emotional arousal and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3(5), 851-863.
- Schissel, B. (2000). Boys Against Girls: The Structural and Interpersonal Dimensions of Violent patriarchal culture in the Lives of Young men. *Violence Against Women*, 6(9), 960-986.
- Schneider, B. H., & Younger, A. J. (1996). Adolescent-parent attachment and adolescent's relations with their peers: A closer look. *Youth and society*, 28(1), 95-108.
- Shulman, S. (1994). *Adolescent intimacy: A new conceptualization*. Presented at the 5th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Sroufe, L. A. (1988). The role of infant-caressive attachment in development. In J. Belsky & T. Nezworski (Ed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pp. 18-38). Hillsdale, NJ: Erlbaum.
- Taylor, S. T. (1988). *The Palace File*. American Historical Review.
- Tremblay, K. D.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Turner, P. J. (1991).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gender and behavior with peers in preschool. *Child Development*, 62(6), 1475-1488.
- Underwood, M. K. (1997). Peer social status and children' choices about the expression and control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10-634.

Underwood, M. K. (2003) *Social aggression among girls*. New York : Guilford Press.

Zimmerman, P., Maier, M. A., Winter, M., & Grossman, K. E. (2001) Attachment and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during a joint problem-solving task with a frie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25(4), 331-343.

<부 록>

1. 기초사항 설문지

기입요령	
<p>※ 다음은 학생 여러분의 개인적 배경에 관한 기초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골라 ___위에 "V"표를 하여 주시고 ()안은 그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학년 : ___① 1학년 ___② 2학년</p> <p>2. 초경(첫 월경)을 경험하십니까? ___① 예(2-1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___② 아니오(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p> <p>2-1. 처음 월경(초경)을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___① 초등 1학년 ___② 초등 2학년 ___③ 초등 3학년 ___④ 초등 4학년 ___⑤ 초등 5학년 ___⑥ 초등 6학년 ___⑦ 중 1학년 ___⑧ 중 2학년</p>	<p>3. 가족 : ___① 할아버지 ___② 할머니 ___③ 아버지 ___④ 어머니 ___⑤ 언니 ()명 ___⑥ 오빠 ()명 ___⑦ 여동생 ()명 ___⑧ 남동생 ()명 ___⑨ 기타 ()명</p> <p>4. 아버지의 교육정도 : ___①초졸 ___②중졸 ___③고졸 ___④대졸(전문대 포함) ___⑤대학원졸</p> <p>5. 어머니의 교육정도 : ___①초졸 ___②중졸 ___③고졸 ___④대졸(전문대 포함) ___⑤대학원졸</p>

2. 부모애착

기입요령					
※ 다음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문항도 빠짐없이 빈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2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3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4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5	부모님과 함께 나의 문제를 상의할 때 나는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6	우리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7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8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9	우리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0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11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12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3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14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1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16	나의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3. 또래관계스트레스

기입요령					
<p>※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아 둔 것입니다. 문장을 잘 읽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여러분의 상태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u>빠짐없이</u> 빈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p>					
번호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진실하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다.				
2	나는 친한 친구와 말다툼으로 사이가 불편하다.				
3	나는 이성친구가 없다.				
4	나는 친구들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5	나의 주변의 친구들이 불행한 일을 자주 당하는 편이다.				
6	나는 친구들간의 경쟁의식이 부담스럽다.				
7	좋아하는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				
8	나는 이성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이다.				
9	나는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				
10	나는 친구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다.				

4. 자아존중감

기입요령					
<p>※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거나 비슷한 칸에 V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한 문항도 빠뜨리지 않고</u> 답해 주십시오.</p>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많다.				
2	나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해야 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는다.				
3	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준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7	나는 남에게 좋은 친구다.				
8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학교생활을 잘 적응한다.				
9	나는 어떤 일이든지 잘 할 수 있다.				
10	친구들은 주로 나의 생각과 의견에 찬성한다.				
11	내 문제는 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2	나는 내가 원하면 항상 친구를 사귄다.				

5. 공격성

기입요령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아 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과 같거나 비슷하든 혹은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빈칸에 V로 표시해 주십시오.					
번호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누가 나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맞서서 같이 때리지 않는다.				
2	나는 친구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 될 때는 그 점을 지적해 준다.				
3	나는 때때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4	나는 가끔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다.				
5	나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6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는 논쟁할 수 밖에 없다.				
7	누가 먼저 나를 때린다면 나도 때리겠다.				
8	나는 거의 매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				
9	나 혹은 나의 가족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누구나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나는 화가 났을 때도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				
11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한 대 얻어 맞기 위해서 괴롭힌다고 볼 수 있다.				
12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쉽게 말한다.				
13	사람들이 나에게 호통칠 때 나도 맞서서 호통을 친다.				
14	나는 매우 흥분했을 때 누군가를 때릴 수 있다.				
15	나는 화가 몹시 났을 때는 심한 말을 한다.				
16	나는 누가 껄뻘하게 해서 혼내주어야 할 때일지라도 차마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없다.				
17	나는 누구하고나 자주 싸운다.				
18	나는 거짓 협박을 자주 한다.				
19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한다면 쓰겠다.				
20	나는 논쟁할 때 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다.				
21	나는 나를 궁지에 빠지게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싸운다.				
22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23	나는 어떤 일에 반대하여 논쟁하기 보다는 차라리 상대방 의견에 따른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특수교육학과	학 번	20057550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송 미옥 한문: 宋 美玉 영문: MI OK SONG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양1동 330-4번지				
연락처	E-MAIL : smo314@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영어)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 Stress on Aggression with Self-Esteem as a Mediator in Middle School Girl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반대()

2011 년 02 월

저작자: 송 미옥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